

4월호

2017 vol.315

“ 김유정 문학촌 생강나무 꽃 보러 오세요 ”

분별을 받으며 신동면 중리 실례마을 김유정문학촌 주변에 생강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김유정 단편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동백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쪽의 붉은 동백꽃이 아닌 노란 생강나무 꽃입니다. 생강나무의 냄새를 맡으면 ‘알싸하고 향긋한’ 생강냄새가 코끝을 타고 들어옵니다.

춘천시정소식지

# 보통내





김유정 다시 읽기는 춘천이 낳은 한국단편소설의 대표작가인 김유정의 글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수필, 편지, 일기, 설문, 좌담 등의 내용을 찾아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김유정 다시 읽기

# 넙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

\*<sup>①</sup>인

“ 시골의 생활감을 적실히 알라면 그래도 봄입니다. 한 겨울동안 흙방에서 복대기든 울분, 내일을 우려하는 그 췌조(悴燥), 그리고 터무니없는 야심, 이모든 불우한 감성이 엄동에 지질되어 압축되었다 봄과 맞닥드리어 몸이라도 나른히 녹고 보면 담박에 폭발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란 원악 똑기가 좀 있어서 위험이 덜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부녀(婦女), 더욱이 파라케 젊은 새댁에 있어서 그 예가 심합니다. 그들은 봄에 더 뜰되어 방종하는 감정을 자제 못하고 그대로 열(熱)에 띄웁니다. 물에 빠집니다. 행실을 버립니다. 나물 캐러 간다고 요리조리 핑계대고는 바구니를 끼고 한번 나서면 다시 돌아올 줄은 모르고 춘풍에 살랑살랑 곳장 가는 이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붓 들리면은 반쯤 죽어날 줄을 그라고 모르는 바도 아니련만— ”

“ 내가 시골에 잇슬제 나에게 봄을 제일먼저 전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술상의 달내입니다. 나는 고놈을 매우 즐깁니다. 안주로 한 알을 입에 물고 꼭꼭 씹어보자면 매끈매끈한 그리고 알싸한 그 맛, 이크 봄이로군! 이러케 직감으로 나는 철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봄에 몸달흔 큰애기, 새댁들의 남다른 번뇌를 연상케 됩니다. 나물을 뜨드러갓네 하고 껍피툼툼이 빠져나와 심산유곡 그윽한 습속에들 물려안져서 넉스이 감춰두엇든 곰방대를 서루 빨아가며 슬픈 사정을 주고받는 그들— 참아 못하고 이럴까저럴까 망설이는 울적한 그 심사를 연상케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

<sup>①</sup> 입히 푸르러 가시든 님  
백설이 흰날려도 안오시네 ”

<조선일보 1935년 3월 6일자>

① 원문의 '입'은 '넙'의 오기인 듯 함

1935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춘채미각(春菜味覺)'란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시골의 봄 풍경을 '유정스타일'로 잘 풀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골'은 실례마을이겠고, 글의 주인공인 '열(熱)에 띄인' 새댁들은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었을 겁니다.

'춘풍이 살랑살랑'하는 4월, 이십대 중반의 유정에게 봄은 소설쓰기에도 '몸달흔'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었나 봅니다. 유정은 이 해 1월, 소설 「소낙비」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현상모집에 1등으로, 「노다지」로 조선중앙일보에 각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소설 금마는 콩밭, 금, 떡, 산골, 만무방, 솟, 홍길동전, 봄·봄, 안해 등을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 불과 스물일곱 때의 일입니다.

출처 : 전 「일본 김유정 전집」 개정증보판, 전신재 편(강, 2012)





### 한눈에 본 춘천시 통계

2017년 2월 말 기준  
+ - 는 전월 기준, 변동 수치임  
chstat.chuncheon.go.kr



인구  
283,935명  
+129



가구  
117,437세대  
+371



자동차  
124,706대  
+262



출생아  
142명  
(2017년 누적출생아 2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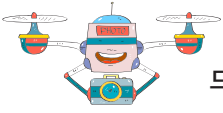
# Contents

- 02 김유정 다시 읽기 - 넘(임)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
- 04 드론으로 본 춘천 - 의암호의 새풍경 레고랜드와 진입교량
- 06 춘천은 지금 - 춘천시 스포츠마케팅
- 08 생활행정 뉴스 - 제11차 도 시장 군수협의회 춘천서 열려
- 14 자랑하고 싶어요 4 - 만천초등학교 여자농구부
- 16 봄특집 - 걸어서 춘천 - 소양로 기와집골 + 약사명동 망대길
- 20 김길소의 그 때 그 사건 4 - 화전정리사업
- 24 봄내 기업탐방 4 - 외과전문 의료기기 생산기업 (주)에이치엔씨지컬
- 27 다시 쓰는 지명유래 4 - 청평산
- 28 춘천의 기념비 4 - 포니 브리지 기념비
- 30 우리 결의 사회적경제 4 - 사회적기업 춘천도시농업센터
- 33 봄내 단상 - 철도와 함께하는 상생의 동반자 춘천
- 34 봄내골 역사수첩 4 - ‘다방’ 그 곳에서 삶을 이야기했다
- 38 손윤권의 패션 톡talk 톡talk - 스커트의 매력
- 39 노재현의 한소품 - 신문은 이제 쓸모없을까
- 40 봄내가 만난 우리 이웃
- 42 명예시민기자가 만난 우리 이웃
- 49 로맨틱 춘천 문화예술소식
- 50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 54 의회소식 -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57 봄내 신문고 - 관광도시 춘천을 위한 관광통계 구축
- 58 봄내골소식
- 62 알림마당
- 68 독자와 함께 합니다
- 69 봄내골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11

# 춘천이 간이 된다

Designed by Chuncheon

봄내 | 315호(2017년 4월호) / 비매품  
창간일 |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 2017년 4월 1일  
발행인 | 춘천시 부시장  
편집위원장 | 우정순(춘천시 공보담당관)  
기획 및 디자인 |  
춘천시 공보담당관실 (033-250-3229)  
상임위원 | 김정호, 이우진  
편집디자인 | 최명근  
인쇄 | 강원도민일보



# 의암호의 새 풍경

## 레고랜드와 진입교량




도, 시비 850억 원을 들여 2015년 7월에 착공한 레고랜드 진입교량이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 캠프페이지 평화로~춘천역 지하 구간~근화동 의암호 수변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에서 하중도 상단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길이 1,058m, 폭 25m의 4차로 다리입니다.

교량 중간에 지름 45m, 높이 55m의 원형 주탑이 설치되고 양쪽으로 케이블이 연결되는 다리 형태입니다.

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교량에 호반 관광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최첨단 조명 연출이 함께 들어섭니다.

원형 주탑은 조명 변화를 통해 보름달, 반달 등 의암호에 떠 있는 달의 형상이 되고, 양쪽 케이블은 그 자체로 밤하늘에 뜬 스크린처럼 되어 춘천의 자연과 생태가 최첨단 조명 제어 기술로 그려집니다. 



촬영일시 2017.3.19. 오후 3시 / 촬영 미디스토리

# 춘천시, 스포츠마케팅 강화 나선다

50여개 스포츠대회 유치 ... 연 100억대 경제 효과



춘천국제제레저대회 개막식 장면

춘천시가 올해 도 단위 이상 50여개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춘천에는 4개 국제대회, 27개 전국 대회, 18개 도단위 대회가 예정돼 있다.

종목도 엘리트와 생활체육에 걸쳐 마라톤, 테니스, 야구, 축구, 배드민턴, 풋살, 수영, 궁도 등 다양하다.

국제대회로는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아시아파라태권도대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 조선일보춘천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시는 도 단위 이상 대회로 올해 강원도사격연맹회장기 사격대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전국중고농구대회, 아시아파라태권도대회를 새로 유치했다.


신규 대회 참가 선수단 규모는 4,000여명이다.

도 단위 이상 기준, 신설 대회의 선수단 규모는 총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대회시기를 봄, 가을 관광, 축제 시즌으로 잡았다.

또 지난 2월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 신규 대회 유치, 참가 홍보, 선수단의 지역 업소 이용, 관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회 효과를 분석해 다음 해 사업에 반영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규모 이상 26개 대회 선수단은 식사, 숙박, 상품 구매 등에 87억원을 쓴 것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선수단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대회를 중점 유치해 지역 관광, 상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체육과 ☎250-4082〉

# 춘천에 ‘주민 스스로’ 관광사업체 본격 가동

## 4개 관광두레 시작...공예품, 숙박, 먹거리 등 운영



주민주도의 관광두레 사업이 지난 3월 7일 칠전동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춘천시의 관광두레사업체들이 5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관광두레는 ‘관광’과 마을 공동체인 ‘두레’의 합성어로 주민이 스스로 공동으로 참여, 운영하는 사업체를 만들어 여행, 기념품, 숙박, 먹거리,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돼 네 개 사업체가 발굴됐다.

이들 사업체는 공지전에서 수제품 베틀시장을 여는 ‘라운마켓’, 서면 게스트하우스 연합체인 ‘쟁강게스트하우스마을공동체’, 공예가들이 참여하는 ‘만들어봄’, 천연발효 유기농 빵 카페를 운영하는 ‘코너스톤’이다.

▲ 리온마켓은 로컬푸드 요리사, 디자이너, 바리스타 등 4명이 각자의 솜씨를 합쳤다.

이들은 수공예품과 가정식 먹거리 베틀시장을 공지전의 명소로 키우는 한편 미니꽃다발, 캘리그래피, 수제 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요즘 확산되고 있는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 쟁강게스트하우스마을공동체는 서면 뒷골에서 개성 있는 전원 게스트하우스 7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 브랜드를 쓰는 게스트 마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 투어, 메밀꽃밭 축제, 카누 투어, 수상체험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

험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 만들어봄은 한지공예, 자수, 전통차 전문가 3명이 뜻을 모았다. 한지를 이용한 관광 기념품과 공예체험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 코너스톤은 베이커리 카페를 공동 운영하는 3명이 사업자다. 천연효모와 유기농 밀에 춘천의 대표 농산물인 토마토, 오이, 블루베리, 감자 등을 이용한 상품을 집중 개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 관광객,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빵집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이들 주민사업체의 자립과 관광명소화를 위해 사업을 총괄할 관광전문가를 관광두레 피디(PD)로 정해 컨설팅과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칠전동 우체국 인근에 관광두레 사무실 문을 열고 각 사업체가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상품 전시 및 품평회를 가졌다.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원대, 강원발전연구원, 한국관광공사, 춘천문화재단 등의 관광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체를 지속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광정책과 ☎250-3063〉

# 제11차 도 시장 군수협의회 춘천서 열려

18개 시장·군수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성명서 발표



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의 민선 6기 제11차 정례회의가 2월 28일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입법권 인정 및 자치법을 집행 >국가재정 배분으로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자립도 제고를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유해야생 동물 포획보상금 및 피해보상금 국도비 지원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건설 건의 >태백선(쌍용~태백) 고속전철 건설 건의 >발농업 직불금(조건불리포함) 상향 조정 >농지전용 양산화 건의 등 현안 대응책도 논의했다.

<기획예산과 ☎250-4099>

# 지방채 구조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 높인다

이자율 높은 차입, 조기 상환하거나 이자율 낮춰 재차입

춘천시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구조 개선을 진행했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 시는 지난해 말 현재 9건에 1,110억원의 지방채를 갖고 있다. 이는 예산 대비 8.3%로 강원도 평균(7.1%)과 비슷하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채 중 이자율이 4%로 높은 2건 194억원은 조기상환 및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바꿔 재차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춘천고속도로 출자금 65억원을 지난 2월 17일 조기 상환했다. 이 출자금은 2005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린 것이다. 원래 2020년까지 상환해도 되나 이번 달 조기 상환하였고, 5억 5,000만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된다. 또 옛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을 위해 2012년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129억원(5년 거치 10년 상환)은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전환했다. 당초 상환 시기는 2027년이나 이자율이 2.8%인 금융권 대출로 바꿨다. 싼 이자로 재차입하면 만기 때까지 연 1억원 씩 총 10억여원의 이자를 줄이게 된다.

<기획예산과 ☎250-3174>

# 추곡약수터에 휴양형 가족체류 관광시설

35억 투입 연말 준공 ... 물놀이·민박·공원 등 조성

북산면 추곡약수 골짜기에 물놀이장 등 가족체류 관광시설이 만들어진다.

춘천시는 추곡약수터를 관광, 휴양형 명품마을로 새롭게 개발하면서 시설을 가족 힐링에 맞춰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북산면 소양호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비 등 3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보상을 진행 중으로 3월 말에는 착공,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주 시설은 주차장, 약수 족욕장, 물놀이장(두 곳), 산책로, 숙박, 특산물 판매시설 등이다.

물놀이장은 계곡을 아트막하게 막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숙박시설은 원주민이 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촌민박 형태로 네 집을 운영된다.

원주민이 식당을 겸해 운영하는 특산물 판매시설은 두 곳이 설치된다. 이 밖에 야생화로 이어진 산책로, 명상의 숲, 작은 공원으로 약수와 체험시설을 연결토록 했다.

추곡약수터는 1980년대 휴양 명소였으나 방문객이 줄면서 관광지 기능을 사실상 못 하고 있는 데 따라 시는 외곽 관광시설 확충 차



추곡약수마을의 현재 모습

원에서 2015년부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약수, 자연, 생태 체험시설을 조성해 가족 체류형 관광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광개발과 ☎250-3073>

# 강촌에 힐링 테마 체험관광시설 확충

밤나무 추억길, 국민캠핑장 등 ... 20억 들여 내년까지

남산면 강촌 일원에 생태, 힐링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시설이 확충된다. 춘천시는 강촌리에 ‘밤나무 추억길’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밤나무 추억길은 강촌 검봉산 등산로 입구인 칼봉 자락 강선사 아래 밤나무 숲 1만 7000㎡에 만들어진다. 국비 등 10억원이 투입돼 전망대, 치유숲, 쉼터 데크, 꽃길 이벤트 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 6월 착공, 내년 준공 예정이다. 캠핑장은 구곡폭포 관광지에 조성된다. 시민과 관광객이 묵어 갈 수 있는 방갈로 형태의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국비 등 10억원을 들여 올해는 관리동을 신축하고 내년에 준공한다. 시는 두 사업 다 사업추진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강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출렁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관광시설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촌 일원을 찾는 관광객이 근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체험관광시설로 체류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했다.

(산림과 ☎250-4287, 관광개발과 ☎250-3907)

# 소양로 칠층석탑 이전, 연말까지 역사공원 조성

중앙로 1가~소양로2가 4차로 확장도 6월말 최종 준공



보물 제77호인 소양로 칠층석탑 자리에 역사공원이 만들어진 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해체된 칠층석탑을 현재 위치에서 뒤로 옮겨 복원하고 그 주변 4,700㎡에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이달 착공해 6월까지 석탑 이전복원을 마치고 12월 중 공원 조성도 마친다는 계획이다.

칠층석탑 이전은 소양로재정비사업 기반시설 확충의 하나로 중앙로1가~소양로2가 4차로 확장사업을 위한 것이다.

석탑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선 4차로 확장이 불가능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칠층석탑 이전에 맞춰 중앙로1가~소양로2가 확장 개선사업이 재추진된다. 이 사업은 중앙로1가~e편한세상아파트~서부시장~소양로2가 간(500m)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e편한세상아파트 진입구간은 2013년 확장이 이뤄졌다.

시는 후속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중앙로1가~e편한세상아파트 경계, 서부시장~소양로2가 구간 확장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250-3819)

##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건립

올 연말 착공, 2019년 상반기 준공 ... 공동사업법인 설립  
친환경 농가 180개 → 300개 육성사업도 함께 추진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가 신사우동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건립된다.

춘천시는 63억원을 들여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착수한다.

부지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정한 것은 제철 농산물의 상시 입출하, 품목별 유통망 확보, 저온저장시설, 시 소유 부지, 시설 활용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입지 선정이 이뤄짐에 따라 4월부터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농협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체 구성을 위해 시 농정지원단과 7개 지역 농협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다.

공동법인을 통해 센터는 지역 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식당, 대형 시

설 등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재 180개 농가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300여개로 늘리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센터가 가동에 들어가면 학생과 시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식단을 꾸릴 수 있고 지역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2019년 상반기 준공, 그해 하반기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공급 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상생, 먹거리 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삶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통원예과 ☎250-4743〉

## 의암빙상장 대대적으로 보수

노후 시설, 빙질 개선...동계올림픽 참가팀 훈련장 제공



의암빙상장 실내

송암스포츠타운 내 의암빙상장이 대대적으로 보수된다.

춘천시는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 총 12억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에 나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피겨스케이팅 팀은 내년 2월 의암빙상장을 훈련장으로 쓸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장애인 아이스하키팀,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장으로 쓰인다.

보수 공사는 크게 노후시설 정비와 빙질 개선으로 이뤄진다. 단열 공사 및 환기시스템을 바꾸고 천정 누수 현상도 바로 잡는다. 빙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동기, 냉각탑, 정빙기를 교체한다. 공사 시기는 대회 개최, 시민 이용 일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키로 했다.

〈체육과 ☎250-4772〉

## 생활체육시설 미리미리 정비

14곳 18개 시설 3월까지 마무리

춘천시는 봄을 맞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의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키로 했다. 시는 최근 야외 운동기구,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임벽등반 시설 등 지역 내 256곳에 설치된 1,400여점을 일제 조사했다. 이 중 고장 나거나 안전하지 않은 14곳 18개 시설을 정비키로 했다. 정비가 이뤄지는 곳은 국사봉, 안마산, 공지천 산책로, 철도 하부공간, 발말근린공원 등이다. 3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체육과 ☎250-4772〉

## 다른 지자체 종량제 봉투 춘천 이사 와서도 사용 가능

전입신고 때 인증 스티커 지급...세대 당 20매 한도

춘천시로 이사하기 전에 쓰던 다른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춘천으로 전입하는 세대가 이전 지역에서 쓰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계속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봉투에 붙일 인증스티커를 지급한다. 전입신고 시 수령하고 온라인 전입신고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용량, 종류 구분 없이 전입세대 당 20매 한도다.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인증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청소행정과 ☎250-3125〉

# 시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이용 증가

지난해 45% 늘어... 신종 농기계 추가 도입, 이용 편의 개선 이유



춘천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 농기계 이용 건은 2,217건으로 2015년(1,527건)에 비해 45%나 늘었다. 임대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실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매년 추가 도입하고 관련 시설 확충, 이용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밭 전용 콤바인을 새로 도입하는 등 현재 71종 526대를 확보, 농업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올해는 인삼

종자, 감자 파종기, 감자선별 수확기 등 신종 농기계를 더 들여왔다. 또 지난해 신동면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이 확충되면서 농기계 부족으로 거리가 먼 신북읍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도 개선됐다. 이밖에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농철에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대형 농기계를 트럭으로 배송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노력을 더하고 있다. <기술지원과 ☎250-4749>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교육 꼭 받으세요

관리 주체나 안전관리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와 교육 이수 필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설치 시 완성검사를 시작으로 정기검사, 수시검사,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승강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와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건축법상 의무규정,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기,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자체점검의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간 체결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에 점검횟수를 적시하면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할 때, 3개월 이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신고하고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승강기 관리 주체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250-3170>

# 옥천동 춘천미술관 옆 축대 위 주택가 정비

올 상반기 중 부지 보상 마치고 연말까지 정비... 임시주차장 활용

옥천동 춘천미술관 옆 축대 위 주택가 정비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춘천시는 58억원을 들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 보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 토지 4,985㎡ 중 4,381㎡, 건물 27개 동 중 23개 동을 보상했다. 올해 남은 토지 604㎡, 건물 4개 동 보상을 마쳐 끝낸다. 시는 정비 후 별도의 활용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시청사 주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오래된 석축의 균열로 붕괴 가능성이 있어 2015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안전총괄담당관실 ☎250-3169>



#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월 운영 시작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종합 지원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친구 역할을 할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춘천시는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기관으로 최근 (재)춘천가톨릭청소년회를 선정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긴급구조, 교육,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시가 올해 역점사업인 보육선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 위치는 동내면 거두리 성우오스타 아파트 뒤편이다. 시는 연 1억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는 기본사업 외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 밖 건강검진 사업 등도 한다. <가족복지과 ☎250-3104>

## 3대 교통반칙! 100일간 집중단속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집중 적발



경찰에서는 국민의 관심과 단속 요구가 많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3대 교통반칙인 ①음주운전 ②난폭·보복운전 ③암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 근절을 위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한다. 춘천경찰서는 3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안전운전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254-5000>



**1. 음주운전**

교통(단속), 지역경찰(검문), 형사(추적) 합동 다기능 음주단속 실시  
음주운전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난폭/보복운전**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  
형법상 협박, 폭행, 손괴 등으로 처벌



**3. 암체운전**

정체 교차로 중심 끼어들기, 꼬리물기 행위  
캠코더로 집중단속

## 시민경찰학교와 함께하는 합동순찰, 안전한 밤길

춘천경찰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일반시민과 경찰관이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야간 범죄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통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후미지거나 어두운 곳 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이 사는 원룸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가, 청소년들이 모여 있을 놀이터, 공원, 폐가 등도 꼼꼼히 돌아다니며 주민의 안부를 묻는 등 순찰을 돌고 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오늘날 범죄의 다양화로 경찰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검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시민의 협조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253-8868>



# ‘전국최고의 보육선도 도시’ 춘천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 내용 꼭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지원부서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 지원(만44세 이하 난임 진단받은 여성) : 체외수정 최대 7회, 인공수정 3회</li> <li>▶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 : 3대 질환 임신부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90%</li> <li>▶ 임신부 지원(주민등록 상 춘천거주 임신부) : 임신부검진비 쿠폰,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신 전 여성 건강검진 등</li> <li>▶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만 18세 이하) :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 지급</li> <li>▶ 임신부 교실 운영 : 요가교실, 출산교실, 모유수유교실, 아기 마사지교실 등</li> <li>▶ 한방난임부부 지원(만44세 이하 난임여성) : 침, 뜸, 첩약 지원, 1인 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li> <li>· 출산보육과</li> <li>☎ 250-4663</li> <li>☎ 250-3993</li> </ul>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중위소득 100%이하) : 건강관리사 가정방문(기간은 5일~25일 선택사용)</li> <li>▶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중위소득 40% 이하) : 만24개월 영아 / 기저귀, 분유 지원 ※ 단,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li> <li>▶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중위소득 72%이하 또는 셋째아)</li> <li>▶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셋째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li> <li>▶ 선천성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자 관리 사업 : 선천성 검사6종 무료/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li> <li>▶ 산후돌봄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 지원자의 본인부담금 일부(한도 2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li> <li>· 출산보육과</li> <li>☎ 250-4663</li> <li>☎ 250-399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일 2016.06.01.이후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춘천시 거주자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보육과</li> <li>☎ 250-4424</li> </ul>
보육 ·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준비금 : 어린이집이용 법정저소득 아동, 장애, 다문화, 셋째아, 부모 중 1명 장애인인 아동 대상 / 연1회 8만7,000원</li> <li>▶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미 이용 가정양육아동/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84개월 미만 10만원</li> <li>▶ 영유아보육료 지원 : 0~2세 어린이집 아동(월 25만원~43만원)</li> <li>▶ 누리보육료 지원 : 3~5세 어린이집 아동(월 22만원)</li> <li>▶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금년 3월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3세(민간 · 협동5만8,000원, 가정7만원) ☞ 4~5세(민간 · 협동4만원, 가정6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보육과</li> <li>☎ 250-4779</li> <li>☎ 250-3110</li> <li>☎ 250-424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 13세 이하 양육비(월 12만원), 중 · 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4,1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보육과</li> <li>☎ 250-44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지원(부모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종일제(6,500원/1시간) : 월 130만원, 월 200시간 이하 ☞ 시간제(6,500원/1시간) : 연 480시간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보육과</li> <li>☎ 250-3686</li> </ul>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 고등 입학금, 수업료 지원</li> <li>▶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학용품비(초등 연 7만원), 교복비(중 · 고등신입생 연 25만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50만원), 난방비(연 30만원)</li> <li>▶ 셋째자녀 이상 특별학비지원(첫째, 둘째 자녀 해당 안 됨) : 셋째아 이상 고등 수업료지원, 대학입학금 100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보육과</li> <li>☎ 250-4401</li> </ul>

## 다른 부서 지원사항도 참고하세요~!

- ▶ 결혼이민자 여성 출산육아용품 쿠폰 지급 : 10만원 상당 / 관내 쇼콜라 외 9개소(방문보건과 ☎ 250-4562)
- ▶ 차량취득세 감면 : 만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가족(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245-5246)
- ▶ 장애인여성 출산비 지원 : 장애1~6급 /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가족복지과 장애인팀 ☎ 250-4273)
- ▶ 농가도우미 지원 : 농촌거주 출산 또는 예정인 여성 2인 / 가구당 240만원(농정과 농업인육성팀 ☎ 250-4738)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범죄피해 아동,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 월 7만원 지원(체육과 체육진흥팀 ☎ 250-3541)
- ▶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 임신 32주이상 ~ 출산 2개월 이내 / 출산육아용품(10만) 쿠폰, 기저귀 각 1회(방문보건과 ☎ 250-4560)
- ▶ 영유아 예방접종 : 12세이하 법정전염병 15종 무료접종(건강관리과 ☎ 250-3694)
- ▶ 드림스타트 운영 : 0~12세 이하 건강, 언어, 학습, 정서 등 맞춤형통합서비스(가족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250-4804)

자랑하고 싶어요 ④

만천초등학교 여자농구부



만천초등학교 여자농구부원들. 왼쪽부터 장윤지, 임하연, 박가인, 홍지현, 홍주혜, 정지윤(이상 6학년), 최예슬, 권유정, 박하늘빛(이상 5학년)

## 농구 불모지에 올려 퍼지는 꿈나무들의 함성

춘천 유일의 초등학교 여자농구팀,  
2016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동메달 쾌거

웃기를 여미게 하는 꽃샘바람도 꿈나무들의 힘찬 함성 앞에선 잠시 숨을 죽인다. 처음엔 놀이처럼 시작했다가 선수까지 된 아이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1명으로 구성된 만천초등학교(교장 박경옥) 여자농구팀의 연습장은 늘 활기가 넘친다.



아이들은 방과 후 매일 체육관에 모여 체력훈련과 기본기, 패턴, 전술훈련을 3시간씩 갖는다. 사진은 드리블 연습중인 아이들 모습

### 집중력이 좋아져 공부도 더 잘 돼요

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장윤지(6학년) 양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부랴부랴 도착한 학교체육관에 하연이, 주혜, 예슬이 등 농구부 친구들의 공놀이(?)가 한창이다.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농구공을 잡은 게 4학년 6월쯤. 농구는 해본 적이 없어 기본기부터 배웠지만 던진 공이 처음으로 골대그물망에 빨려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드리블, 슈팅, 전술훈련까지 차근차근 몸에 익혀 주전선수가 되었고 현재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다. 학교 성적도 매우 좋은 윤지 양은 “자유투 던지는 집중력으로 공부하면 공부도 더 잘 돼요. 농구가 재밌어서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요”라며 부지런히 몸을 놀린다.

### 춘천 유일의 초등학교 여자농구팀, 큰일을 내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2015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원주단관초등학교 여자농구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가.

춘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여자농구부를 운영 중이던 봉의초등학교가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만천초등학교가 바통을 이어받아 농구부를 창단한 지 5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사실, 창단 이듬해인 2011년도 전국중별선수권대회에선 전패를 당했다. 농구의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선수들을 모아 그야말로 농구의 밑바닥부터 가르쳐 간간 대회였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전패를 해도 아이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이들의 눈동자가 달라졌다. 게임의 맛을 알고 한 번, 두 번 우승을 하면서 선수들은 본격적인 욕심을 보였다. 학생, 선생님, 부모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 2016년

다시 원주단관초등학교를 꺾었다. 강원도에 초등학교 여자농구팀은 총 2개 팀이기 때문에 승리는 바로 전국대회 출전으로 이어지는 것. 그렇게 출전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드디어 큰일을 낸 것이다.

### 올해도 목표를 향해 아자아자 파이팅!

봉의중과 춘천여고에서 농구선수로 활약했던 전나영 코치(44)는 팀 창단부터 함께 했다. 농구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하나 둘 끌어 모아 강원도대표를 넘어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기까지 전 코치는 온 힘을 다해 터를 고르고 탑을 쌓았다. 피구나 발야구 등 재밌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과 친하게 했고 틈틈이 기본기부터 시작해 드리블, 슈팅연습을 시켰다.

3년 지나니 게임을 할 정도가 됐고, 5년이 돼서야 제법 농구부의 틀을 갖춰 게임에 나가서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현재는 매일 방과 후 체육관에 모여 체력훈련이나 기본기, 패턴훈련, 전술훈련을 3시간씩 한다. 대회가 잡혀 있을 땐 주말에도 나와 봉의중학교 선수들이나 남부초등학교 남자 농구선수들과 게임을 하고 방학 땐 인천이나 수원, 청주 등 외지를 돌며 전지훈련을 한다.

“첫 번째 목표는 강원도소년체전에서 이겨 강원도대표가 되는 것이고, 다음은 4월 23일에 있을 전국 대회 예선전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보자”며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는 전 코치의 구령소리와 아이들의 함성이 체육관 가득 울려 퍼진다. 나나농구

글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 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 걸어서 춘천

소양로 기와집골 + 약사명동 망대길

글 이우진 상임위원  
사진 강두환(자몽사진연구소장)



햇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운동화로 갈아신고,  
카메라 하나 둘러메고,  
친구들과 훌쩍 떠난 시간.

우리, 함께 걸어 볼까요



지난해 <내얘기들어보시겠소> 소양로 기와집골편 (2016년 8월호)의 주인공인 최홍순 씨와 함께 떠난 도심 골목길 여행입니다.

우리는 기와집골을 시작으로 서부시장, 요선동으로 오르는 사창고개, 캠페이지가 있던 시절의 화려했던 골목 초입새와 춘천고와 성수고등학교 사잇길을 걸은 뒤 낙원동의 어느 한 카페에서 숨을 돌렸고, 중앙로 건너편 약사명동의 망대길을 뒤이어 올랐습니다.

토박이가 안내하는 골목길에는 그의 유년시절과 청년기, 그리고 그 시절을 거쳐 온 춘천의 역사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에 봄내 애독자 세 명(김나연, 김상진, 정은경)이 봄별에 함께 했습니다.



**소양로 기와집골**

1940년을 전후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민가가 기와집골이란 이름을 만들어 낸 지 올해로 80년. 이 시간은 이제 곧 대단위 아파트 군락으로 그 풍경을 바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봄 풍경이 될지 모를 기와집골의 풍경입니다. 햇살 찌기에 여념 없는 어느 집 백구의 모습 이 한가로우면서도 정겹게 다가옵니다.

**없어질 고향, 그리울 고향**

최흥순(74) 씨에게 기와집골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곳에서 아이들을 낳아 키워낸 곳. 그는 유년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이제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든 옛 시절의 멋드러진 기와집 흔적도 잘 찾아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창(司倉)고개**

기와집골을 벗어나 요선동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사창고개입니다. 그 옛날 사창(司倉)이 있어 사창고개라 부른 것을 한국전쟁 후 이 곳 주변으로 윤락촌이 생기면서 다른 의미의 사창(私娼)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 그런 길입니다. 이 고갯길 마루턱에는 지금은 사라진 1930년대에 막국수를 춘천에서 최초로 팔았다고 전해지는 방짜막국수가 있었고 1970-80년대 기념할만한 날이 되면 찾았던 갈빗집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봄특집

# 걸어서 춘천

소양로 기와집골 + 약사명동 망대길



craft coffee

건다보니 어느덧 이마에 맺힌 송글송글 땀방울  
누군가 살던 옛 집을 고쳐 만든  
커피집을 들러 숨을 고릅니다.

이제 다음 발걸음은 약사명동의 망대길.  
어깨가 닿을듯 말듯한 골목길을 따라  
우리는 과거로 향해 봅니다.





### 문득 돌아본 풍경

망대로 향하는 길을 오르다 문득 돌아본 뒷모습. 춘천의 과거와 현재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망대길과 약사길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아래와 같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반깁니다.

### 망대

말 그대로 망을 보기 위하여 세운 높은 데. 이곳이 망대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화재를 망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얘기 합니다.  
1982년 통금이 해제되기 전까지 사이렌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떨리게 울리는 곳이기도 했지요.  
그 아래로 달팽이처럼 돌돌 말아 올린 것처럼 산비탈에 올라앉은 수많은 집들.  
이 곳에 오래 산 어른들은 '통금이 있던 시절 이곳까지 집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늦게까지 장사 하던 중앙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끝내고 약사고개로 넘어가려니 너무 멀어 통금에 걸리지 않으려고 망대 부근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  
계획 없이 짓다보니 꼬불꼬불 만들어진 골목길이 이제는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도심 속 정겨운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 언저리에는 춘천고보 시절 5년(1938~43)간 이곳에서 청년시절을 보낸 조각가 권진규의 삶도 스며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기와집골과 같은 운명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어깨 높이의 휴먼스케일, 더 늦기 전에 찾아나서 보시기를...



### 골목길 빨래 풍경

봄볕에 빨래는 잘도 말라갑니다.  
이제 곧 이 풍경도 사라지겠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과 개발 부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 엄청난 사회변화가 이뤄진 이 격랑의 시기에 조용한 '봄의 고장' 춘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김길소 편집위원은 지난 1970년 이후부터 40여 년간 일선 기자와 언론인으로 춘천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과 변화의 물결을 지켜 본 토박이 언론인이다. 지금은 까맣게 잊혀져 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그의 글과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을 통해 그 때를 기억하고 숨은 일화와 뒷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④ 화전정리사업

## “화전, 피폐한 삶의 자연스런 유산”

글 김길소 편집위원 사진 강원일보사



세계기록총회가 2016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인류가 보듬어 나가야 할 역사적 유산을 챙기는 국제회의였다. 이 자리에 지난 1975년 한국의 화전민들이 산을 내려오는 대형 사진이 전시됐다. 산 속에서 낡은 트럭이 구차한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있었다. 마치 피난길이나 강제철거 현장을 떠올리게 했다. 이 사진이 왜 세계역사 기록물로 채택됐을까. 그것은 좁고 척박한 땅에 황폐한 산악이 많은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푸른 산을 되찾는 변곡점을 만든 역사적인 한 장면이었기 때문이었다.



### 모진 목숨 부지해주던 피난처, 화전

강원도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전민(火田民)이 살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화전 총면적이 8만 6,000정보(852,892,562㎡)였다. 화전민도 39만9,500명에 가구수가 7만 600세대(강원도 임업 1933년 참조)에 이르렀다.

먹고살기조차 힘들었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살아왔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통계다.

지금은 춘천시와 춘성군이 도농 통합으로 한 몸이 됐지만 우리 고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라에서 화전민을 없애려는 노력은 조선조 전통사회 이전부터 있어 왔다. 대부분 노비 출신이었다. 이들 화전민은 주인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산속으로 피했던 터라 생활이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역사로, 해방 이후에는 혼란과 전쟁의 여파로 국토는 날로 황폐화되었다.

봄철이 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낸 후 불을 질러 밭을 일켰다. 이 바람에 산불도 자주 일어났다.

이렇게 만든 땅이 비옥하면 감자를 심었다. 척박한 땅에는 조, 옥수수, 귀리, 콩, 팥 따위의 콩과작물을 주로 길렀다.

가끔 산나물과 산삼이나 약초를 캐거나, 나무로 뿔감을 만들어 지게에 지고 오솔길을 내려와 시장에 내다 팔아 연명했다.

불박이로 한곳에서 사는 정착화전민과 떠돌아다니며 농사를 짓는 유랑 화전민이 있었다. 그러나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땅 힘(地力)이 떨어져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다.

1 화전민이 떠난 화전지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동원되어 조림사업이 진행되었다.(1976년 5월)

2 2016 세계기록총회 당시 전시된 사진. 1975년 화전민 이주 모습이다.(사진 산림청)

3 춘성군에서 있었던 화전민 이주 정착 기간 기념식. 1964년 강원도 조사에 따르면 당시 도내 화전민은 총 3만1,079세대에 달했다. 이주 사업은 1970년대까지 계속돼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화전정리법도 1998년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1965년 5월)

4 춘성군에서 있었던 이주 화전민 환송식.(1974년 3월)

5 이주 화전민에게는 이주 지원금과 주택, 일자리, 생필품 등을 지원해주었다.(1974년 3월 28일)

이런 독가촌(獨家村)들은 치안의 손이 닿지 않아 범법자나 공비의 소굴로 악용되거나 산사태와 산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역대 정권들은 골칫거리로 인식했다.

조선 숙종 때 조정에 올린 상소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화전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백성의 실업과 이산, 굶주림을 염려함에 있다”

화전이 끼치고 있는 폐해를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거나 수수방관해 왔었음을 읽을 수 있다.

### “화전이 한 곳도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라”

시간 나는 대로 농촌에 들를 때마다 화전정리를 강조해 온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화전정리에 나선 것은 1974년이다. 그해 2월 6일 강원도 연초순시를 위해 춘천에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박종성 도지사에게 그동안 이뤄놓은 화전정리의 성과를 격려한 후 엄명을 내린다.

“강원도는 3년 이후 화전이 한 곳도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라”

갑자기 떨어진 불뚱으로 강원도청에 난리가 났다. 당시 젊은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김승래(관선 시절 마지막 춘천시장) 씨를 즉각 화전담당관으로 임명, 조직을 개편하고 추진체계를 갖춰 나갔다.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고 토양을 보존하려고 화전정리법을 공포(1968년)해 정리에 나섰지만 아직도 산간지방에서 많은 화전민이 남아있던 시기였다.

우선 강원도정의 최우선 역점 과제를 「화전정리」로 정하고 3개년 계획을 세운 후 산속 구석구석을 뒤져 실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올라가 정리와 이주에 필요한 법

적 뒷받침과 특단의 예산확보 작업에 나섰다.

시장, 군수는 물론 전 직원에게 부락별 책임제로 임무를 부여하고 “기간 동안 이주가 되지 않으면 산에서 내려오지도 말라”는 불호령이 떨어질 정도였다.

### 화전정리를 통해 얻은 푸른 산

1차로 이뤄졌던 화전정리 10개년 계획(1965년~1974년까지였으나 후에 7개년 계획으로 조정)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후속 대책도 면밀하게 추진됐다.

높고 깊은 산속마다 화전정리 깃발이 나부끼고 전 행정력이 집중돼 살살이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이 큰 탄력을 받았다.

담당자들이 달려와서 쫓아내면 잠시 피했다가 되돌아 왔던 화전민들도 과거와 다른 분위기를 직감, 하나둘 이주를 결심하기 시작했다.

“이주민에게는 다른 시·군으로 가면 40만원, 같은 시·군이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주었어요. 당시 9급 공무원 봉급이 1만원이 채 안 됐던 시절이었으니 큰돈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집 1채(건평 5평짜리)를 지어주고 능력에 따라 대토(代土)와 일자리를 알선해 우선 큰 불편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당장에 필요한 생필품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구요.”

그렇지만 모두가 수긍하는 건 아니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정든 곳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버티는 사람도 더러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은 이석래(75·전 강원도산림정책관) 씨는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고 까마중이나 도토리



트럭을 이용해 집단 이주 중인 화전민들. 정든 곳을 두고 떠나는 아쉬움이 컸던지 오른쪽에 서 있는 노파는 사진 찍는 도중에도 눈물을 흘린다.(1974년 4월)

조차 마음껏 따 먹지 못했던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진 데 대해 감사의 편지를 보내 왔을 때 큰 일을 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불철주야로 사업에 매달려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3년 후인 1976년까지 총 사업비 65억 원을 들여 화전지 2만 4,700ha(헥타르)와 공인지 4,950ha를 산림으로 완전 복구했다. 또 화전민 6,323가구를 이주시키고 일반 독립가옥 816가구를 정리할 수 있었다. (강원도 발간 화전정리사 참조)

이주 사업이 끝난 후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각 기관과 사회단체 지도자급 인사들과 자매결연을 주선해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 철저한 사후 관리와 사직 당국의 처벌 수위를 높여 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엄격히 막았다.

이 과정을 통해 1974년부터 1976년까지의 화전정리 기간 동안 춘천(춘천시와 춘성군의 합계, 자치단체장은 유기천 시장과 손주용 군수였음)에서 1,307가구의 화전민이 이주하는 성과가 이뤄졌다.

나무 심기와 사방 관리를 통해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산에서 화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만들었다.

### 이제는 흔적으로만 남은 화전민들의 터전

대룡산 자락 사암3리에는 지금도 당시 이주했던 화전민들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1970년대에 지은 주택단지에 옛 모습을 오롯이 간직한 채 모여 살고 있다.

남산면 산수리(옛 통곡리) 106의 깊은 산 속에는 아직도 화전민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어 찾아 가 봤다.

비탈에 있는 조그만 평지에도 돌담을 쌓고 성냥 꺾만 한 단칸방(온돌) 집을 지었던 모습이 드러났다. 그 주변에는 여러 폐기의 작은 논과 밭이 보였다.

너른 마당도 없었다. 그 흔한 신작로도 닿지 않아 숲 속을 헤치고 나서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거두고 한 뼉의 땅이라도 더 마련하려고 급경사나 바위, 나무 그루터기를 피해 밭을 갈았던 모습이 역력했다.

골산 들머리까지는 너무 멀어 마실을 다니기도 수월치 않게 여겨졌다.

계곡이 깊어 일찍 해가 넘어가면 전기가 없었을 텐데 캄캄한 야밤을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걱정도 지레 앞섰다.

요즘 한 TV방송사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들먹이자 “그건 귀족 생활이죠”라고 쏘아붙였던 어느 이주민의 강변을 떠올리게 만든다.

여기저기 일궈놓았던 논과 밭떼기 한복판에는 벌써 아름드리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이 하늘 높이 쪽쪽 뻗어 있었다.

산을 내려오면서는 이 사업에 나섰던 어느 초로의 공직자가 “지금도 강원도가 발간한 『화전정리사』에 참여자로 등재된 걸 보람과 자랑으로 여긴다”는 말이 더욱 수궁이 갔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수행해 박종성 전 도지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말년에 병고에 시달릴 때 해외치료 등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관가에서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봄철 나무 심는 시기를 맞아 화전정리사업이 국토보존에 해악을 끼쳐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워놓은 의미 있는 사업이었음을 되새겨 보게 된다.

44



김길소(편집위원·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춘천 태생으로 1970년 강원일보사에 입사, 편집국에서 강원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취재했다. 편집국장, 논설주간, 상무, 전무이사를 지낸 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언론사와 피해자의 중재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 끊임없이 공부하며 길을 찾는 기업

국내최초로 복강경 수술 관련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술력 하나로 외과의료기기 세계시장 공략 시작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한희상 (주)에이치엔씨지컬 대표가 직원들과 2017년 출시될 제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주)에이치엔씨지컬(대표 한희상·40)은 복강경(腹腔鏡) 수술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외과의료기기 전문생산기업이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배꼽 부위에 0.5~1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배 안에  
고화질 카메라가 부착된 복강경을 이용해 비디오 모니터를 보며 특수기구로 하는 미세수술이다.

(주)에이치엔씨지컬은 국내최초로 복강경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해 존슨앤존슨과 코비디엔 등  
다국적 의료기기회사들이 점유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 모두가 공부하는 회사 ‘(주)에이치엔씨지컬’

(주)에이치엔씨지컬 직원들은 늘 공부한다. 직원들이 공부하는 것에 회사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에 이야기하고 배우면 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배웠으면 회사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한희상 대표의 생각이 녹아있다. 직원들은 회사업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한다.

직원들은 하루 한 번 모여 영어공부를 한다. 수업은 하나의 주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목적은 단순하다. 외국 바이어가 방문했을 때 자신의 업무를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 대표가 근무했던 다국적 기업은 많은 연봉을 주는 대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끊임없이 회사 업무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했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의 회사에 도입한 것이다.

## 국내 최초로 복강경수술 관련 의료기기 제조에 도전장

한 대표는 다국적의료기기 회사에서 역대연봉을 받았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 외국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것이 싫어 안정된 회사를 그만두고 2010년 용인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시작했다. 창업 초기 영업을 하며 다져 놓은 인맥이 있어 판매는 어렵지 않았다. 매출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기업들

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고민 끝에 의료기기 제조를 결심했다. 당시 어머니가 아프셨던 것도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에 한 몫했다.

제조는 길은 너무 힘들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기기는 여러 번의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었다. 모두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다. 작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지만 국내 최초 외과 의료기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버텼다. 영업을 하며 만났던 외과 의사들의 살아 있는 조언들은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제조를 시작하고 6년간 한 대표는 자신의 월급을 집에 거의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월급을 밀린 적은 없다. 월급은 직원들과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 외국대형 의료기기회사와 당당히 경쟁

한 대표는 제조를 시작하며 ‘돈을 벌 것이라면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품의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 주력했다. 그 결과 (주)에이치엔씨지컬은 존슨앤존슨과 코비덴 등의 다국적 의료기기회사가 선점하고 있는 외과 의료기기 시장에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외국계 대형기업에 뒤지지 않는 품질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복강경(腹腔鏡) 수술을 할 때 몸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투관침(套管針)인 ‘R5 TROCAR’와 혈관을 결찰(結紮)할 때 사용하는 폴리머재질의 클립 ‘HANS CLIP’을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CE인증(안전, 건강, 환경 및 소



한희상 대표

비자보호와 관련해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과 ISO13485인증(의료기기 설계·개발·생산·설치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했다는 인증)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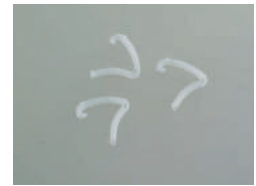
2017년부터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폴리머클립을 혈관에 결찰시키는 ‘CLIK BOOM’과 초음파로 혈관을 절제하고 결찰시키는 초음파절삭기 ‘SONIC BOOM’, 혈관을 결찰 할 때 사용하는 티타늄재질의 클립 ‘HANS TAITAN’ 그리고 ‘HANS TAITAN’을 혈관에 결찰시키는 ‘TAITAN BOOM’을 출시해 판매할 예정이다.

### 돈과 기업철학

제품을 연구하며 다수의 국제특허를 가지게 되었다. 해외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외국거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받기도 했다. 회사를 자신들의 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연봉 5억원의 부사장직을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돈보다는 기업의 철학을 택했다. 돈을 따라 갔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도 ‘정직하게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외화를 벌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양심에 따라 정직한 제품을 만든 결과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6년 하반기에는 한 달 만에 3억원의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국내 거대 제약회사와 판매계약을 맺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내수시장과 해외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혈관결찰 클립생산 공장



(주)에이치엔씨지컬에서 생산하고 있는 복강경 투관침(맨위), 티타늄재질 혈관결찰 클립(가운데), 폴리머재질 혈관결찰 클립(맨 아래)


### 춘천을 100만 이상이 사는 기업도시로

(주)에이치엔씨지컬이 춘천으로 온 것은 2015년. 춘천 기업유치담당 공무원의 한마디가 회사를 춘천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지역 기업이전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이야기하며 이전을 권유했다. 하지만 춘천담당공무원은 “이전보다는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회사가 더 안정화 되면 춘천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다. 정직하게 말하는 공무원에 반해 바로 퇴계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장을 매입해 바로 이전했다.

한 대표의 꿈은 (주)에이치엔씨지컬을 25만명 이상이 일하는

회사로 만들어 춘천을 100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 젊은이여 도전하라! 그리고 이야기하자

한 대표는 금수저와 흙수저를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나도 흙수저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입사했을 때 받은 월급이 70만원이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니 연봉 1억 5,000만원까지 받았다”며 “자기가 하는 일에서 흥미를 찾고 노력하다 보면 인정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 직원 인터뷰

###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

박상민 연구개발 품질관리담당

박상민 씨는 19년간 의로기기 생산과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일을 하며 늘 하고 싶은 연구 아이템이 있었다. 그 아이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주)에이치엔씨지컬로 이직했다. 2013년에 입사해 의로기기 인허가 절차와 생산개발 기초작업을 했다. 춘천에 의로기기 생산설비가 90% 이상 갖춰진 2016년 춘천 본사에 합류했다. 합류 전까지 재택근무를 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의로기기 인허가 작업을 했다.

“(주)에이치엔씨지컬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생각이 자유로우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이 맞은 일을 마치면 언제든지 쉬 수 있다. 회사에 모여서 하는 회의가 거의 없다. 단톡방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해 전 직원이 회사의 모든 공정을 이해하고 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안다. 그 정도로 회사 정보에 대한 비밀이 없다.”

### “모든 영업은 연습이다”

이상범 국내영업담당

이상범 씨는 2016년 5월에 (주)에이치엔씨지컬에 입사해 15일 만에 인턴을 마치고 2016년 12월 대리로 승진했다. 본래 약국과 병원 의약품 영업을 했었다. 외과의료기기 사업에 비전이 보여 이직을 결심했다. “국내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항상 회사에서 상황극을 통해 연습을 하고 영업에 나간다. 면접도 상황극이었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한 대표에게 약을 파는 것이었다”

“저녁에 회식이 없다. 점심시간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여름에는 미리 단톡방에 공지를 해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한다. 강요에 의한 회식이나 업무는 없다. 자기가 알아서 맞는 일을 수행하고 공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이 연속이다”

최영광 영업마케팅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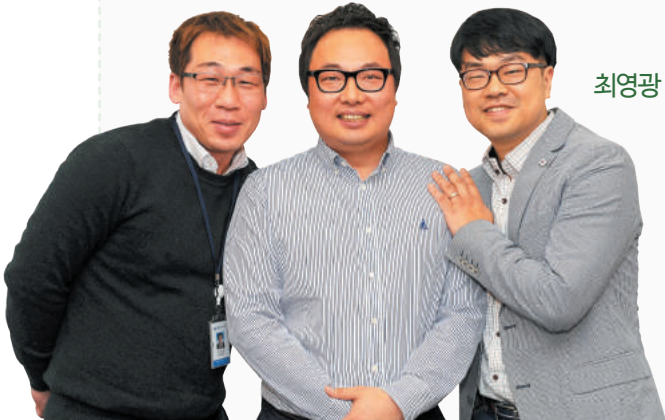
최영광 씨는 2014년 (주)에이치엔씨지컬로 이직하며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진단의료기기 시장은 자리를 잡아가며 성장 가능성은 적지만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외과치료의료기기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신 위험부담도 높은 분야였다.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부가가치도 높다. “함께 힘을 합쳐 난공불락이 되자”는 생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다.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생각은 한희상 대표와 같은 마음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전에 일하던 직장의 연봉이 더 높다. 하지만 지금 직장에는 꿈이 있다. 조금은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상범

박상민

최영광





# 구도자 정신이 깃든 청평산 淸平山



소양강은 봄내 또는 춘천(春川)과 동의어이다. 청평이란 지명에는 청빈과 탈속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구도자의 정신이 내재해 있다.

청평이란 지명은 한자어로 맑을 청(淸) 자와 평할 평(平) 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평스러운 시대를 맞아 ‘맑은 평안’을 누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청평산을 기억하는 춘천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오봉산이라고 해야 쉽게 알아듣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비해 오봉산이란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란 뜻으로, 봉우리 숫자로 이름을 붙이는 단순 조어방식을 취했다. 춘천의 구봉산과 삼악산, 홍천의 팔봉산 등이 동일한 조어방식으로 이름을 지은 예이다. 봉우리 숫자로 산 이름을 정하는 예가 옛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 이름을 손쉽게 지을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청평산을 오봉산의 옛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오봉산이란 이름은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1970년대 중후반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산의 봉우리 숫자로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산이 지니고 있는 참의미를 놓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산에 내재해 있는 정신까지 잃게 되는 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청평산 지명의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고려시대 이자현이란 인물과 맞닿아 있다. 이자현은 고위직 벼슬과 수많은 재물을 내던지고 1089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의 아버지 이익은 이자현이 오

기 이전에 폐사가 된 백암선원을 1068년에 중건하여 보현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티전을 마련하여 놓았다. 이자현이 이곳에 은거하여 살게 되자 도적이 없어지고 호랑이와 이리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러한 영험한 일이 있자 이자현은 산의 이름을 청평산으로 짓고 보현원을 문수원으로 변경하였다. 반면 청평사는 조선시대 승려인 보우가 1550년에 극락전과 요사채를 신축하고 나서 지은 이름이다.

청평산은 앞서 경운산으로도 불렸는데, 경운을 한자로 쓰면 경사 경(慶) 구름 운(雲)이 된다. 이는 태평시대를 맞아 경사스러운 구름이 모여든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니 경운산과 청평산은 뜻이 같으면서 음이 다른 이음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경운산과 오봉산이 별개의 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것에 근거해 두 산을 별개의 산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청평산 동쪽 선착장 앞쪽에 솟아 있는 봉우리를 부용산으로 명기해 놓고 있는데 이 또한 청평산의 주봉이 부용봉임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산 이름을 붙인 잘못된 예이다. 고려시대 이자현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 벼슬길에 오르기도 하였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이자현은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청평산에 와서 평안함을 누렸는데 권력과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높은 정신적 경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청평산은 청빈과 탈속의 구도자 정신이 담긴 성지라고 할 수 있으니 이에 청평산과 부용봉, 경운산 등의 지명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글



글 허준구(춘천문화원 사무국장)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강원도 정신의 원류를 찾는 작업을 평생 소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향 춘천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춘천학에 매진하고 있다. 요즘은 한문원전 번역사업과 춘천역사인물에 대한 발굴과 연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 ‘포니’ 라는 이름을 가졌던 소양2교의 옛 사연

글·사진 심창섭 편집위원



**1** 소양강처녀상 앞에 세워져 있는 포니 브리지 기념비.  
 포니 브리지는 미 62공병대가 1951년 8월 나무다리(길이 573m, 폭 4.15m, 높이 8.23m)를 준공하면서 1950년 11월 청천강 전투에서 전사한 포니(Frank Hartman Forney) 대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포니 브리지는 1960년대 초까지 춘천의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다 1967년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되면서 소양2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7년 4차로로 건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념비는 2014년 10월 16일 소양강처녀상 앞으로 이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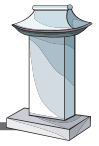
새로운 명소인 소양강스카이워크 주변에 낫선 영문비(碑)가 하나 서 있다. 중앙에 독수리 모양의 문장이 있고, 상단에 큰 글씨를 새겨 놓았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라 읽기조차 어렵다.

“FRANK FORNEY BRIDGE(프랭크 포니 브리지)”

오히려 그 모호함이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하단에 간단한 기록이 있지만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지 좌우에 2개씩 세운 작은 비석에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담아 놓았다.

얘기인즉슨 비석 뒤편으로 보이는 크고 멋진 소양2교가 다름 아닌 나무로 만든 다리였다는 내용이다. 작은 개울을 사람들이 뒤통거리며 건너던 외나무 다리나 싹다리가 연상되는데, 이 너른 강에 길이가 무려 573m나 되고 폭이 4.15m의 긴 나무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 소양강 일대는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과 대치하며 치열하게 싸우던 격전지였다. 그 당시에도 소양1교가 있었지만 교량 폭이 좁아 군수물자 수송용 대형차량 통행이 불편했다. 이에 미군이 전쟁이 한창인 1950년 위험을 무릅



2



3



4



5

- 2 나무다리 시절, 색깔이 거무죽죽해 이 인근 사람들은 ‘꺼떡다리’라고 불렀다. 당시 미 공병부대가 한국에서 건설한 교량 중 가장 긴 교량으로 기록되어 있다.
- 3 포니 브리지의 주인공인 포니 대령. 한국전쟁 당시 미 24보병사단 19 전투공병 단장이었다.
- 4 1951년 8월 1일 가졌던 포니 브리지 준공식과 당시 나무 명명판 모습. 이후 1967년 소양2교 준공식에 맞추어 비석으로 바뀌었다.
- 5 1967년 4월 27일에 열린 소양2교 준공식 모습. 다리 입구 좌측의 남성이 포니 브리지 기념비의 내용을 읽고 있다. 신사우동에서 소양로 방향으로 본 모습이다.

쓰고 나무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는 한국전쟁 중 미군이 건설한 가장 긴 다리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 나무다리는 전쟁이 종료된 후 1960년대 초까지도 춘천시민에게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무다리가 노후되어 철거하고 1967년에 길이 492m 폭 12m의 시멘트 교량을 세운 후 소양2교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미군의 지원으로 새 콘크리트 다리를 준공하면서 예전 다리목에 서있던 명명 내용을 옮겨 남긴 것이 바로 ‘포니 브리지’ 비이다.

비문은 1951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포니 대령을 추모하며 기억한다는 뜻에 따라 그의 이름을 빌려 다리 명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문이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도 무심히 지나치기만 했던 빔돌이었다. 그동안 소양2교는 몇 차례 폭을 넓히며 변신을 통해 지금의 멋진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 부침(浮沈)의 세월 속에서도 신사우동 소양2교 복단 입구를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다행히 2013년 한국전쟁 춘천지구전투 학술발표회에서 소양2교와 포니 대령의 사연이 밝혀지면서 이 비가 재조명되었다. 이듬해 10월 지금의 자리인 소양강치녀상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포니 대령의 약력과 다리의 변천사가 담긴 보조 조형물을 세움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의미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실임을 떠올리며 이 비 앞에서 잠시 경건한 마음을 가져본다. 멀리 화악산을 배경으로 위암호를 한가롭게 지키고 있는 백로 무리가 한 폭의 수채화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춘천, 벌써 사월이다.



심상섭(편집위원·춘천문인협회장)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춘천시청에서 문화재 업무를 전담하다 2006년 정년퇴직. 사라져 가는 춘천의 풍경과 민속 문화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기록 중이다. 포토에세이 《때론 그리움이 그림다》를 썼다.



2008년 7월 비영리단체로 출발한 춘천도시농업센터는 도시에서의 친환경 유기농법을 보급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수제 가구 브랜드 ‘나무와 함께’를 제작하는 목공체험실에서 촬영에 응한 이천식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최병진 교육연구부장(가장 왼쪽), 정종설 제작부장, 김지숙 목공강사.

## “결국 사람은 흙과 더불어 사는 존재더군요”

글 이우진 상임위원 / 사진 강두환(자몽사진연구소장)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보내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 춘분을 맞이하니 어느덧 길가에 머리를 숙 내민 냉이와 달래. 그 향이 코끝을 스친다. 도시 화원엔 봄꽃이 하나 둘씩 인사를 하고, 시골 농부들은 농사준비를 위해 겨우내 묵은 농사도구를 하나 둘 챙기는 모습이다. 바람은 그대로지만 드디어 땅에는 봄이 찾아 온 것이다.



춘천도시농업센터에도 봄이 당도했다. 비닐하우스 안 텃밭엔 어린 상추 잎이 몽실몽실 솟아오르고, 목공하우스엔 4월부터 시작될 목공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도시농업센터의 움직임 한가운데 이천식(65) 대표가 있다.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35년, 그 시간의 절반을 농장에서 보냈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한껏 정성들인 시간들, 삶의 고단함이 흙 위에서 풀렸다. “흙에서 작물을 심고 가꿀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물론 농사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번잡한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땀 흘리며 일하게 되니 무념무상이랄까 그런 기분도 들고...”

퇴직이 가까워지며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다보니 자연스레 환경, 생태에 관심이 갔고 환경운동에도 발을 디디게 됐다. 그러나 실천보다 구호를 외치는 방식에 갖게 된 물음표. 답은 다시 농사였다. “구호 중심의 환경운동보다는 몸을 움직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아낸 게 농사였어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환경운동이다, 실천 활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지인들과 함께 춘천도시농업센터의 전신이라 할 ‘행복연구소’를 만들었다. 2006년이였다. 함께 농사지으며 그 즐거움을 공유했다. 즐거움이 커

지자 공부가 더 필요했다. 농사, 생태, 환경, 기후변화 전문 과정 등을 배우고 나니 “우리의 행복만 찾을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도 만들고 그런 도시농업을 통한 환경실천도 하고 아이들이 흙과 가깝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춘천도시농업센터입니다” 이 모든 게 흙의 힘이었다.

### 흙에서 찾은 사회적 경제

춘천도시농업센터는 도시에서의 친환경 유기농법을 보급, 지원한다. 그렇기에 도시 내 유희지 등을 임차해 텃밭을 조성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이를 분양한다. 현재는 퇴계동 803번지 부지를 이용하고 있다. 유기농법을 근간으로 하기에 농약사용은 허락되지 않는다. 농장에 직접 와서 농사 짓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상자텃밭도 제공한다. 집에서든 작거나 꽃을 키우거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다.

농사를 짓다보니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필수가 됐다. 자연스레 목공수업이 도입됐고 5년 전 개설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요즘은 만들어진 물건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서 쓰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목공수업을 통해 내가 내 것을 만들어 쓰는 즐거움을 많이들 느끼는 것 같아요”

미리 재단되어있는 부자재를 조립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닌, 설계부터 재단 조립 마감 전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다. 간단한 톱질과 못질부터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기초맞춤과정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일반 시민 대상의 환경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분명히 지역에 도움이되는 일을 찾아낼 수 있을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천식 대표



### 적게 벌어도 함께 나누고 싶다

2008년 7월 비영리단체로 춘천도시농업센터를 출범시키며 이 대표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들자 2년 뒤에는 교사일도 그만두었다. 점차 그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이 잦아졌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책임도 부여됐다. 민간 주도의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대표로 활동했고 현재는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와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어깨에 내려앉은 무게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요즘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불경기가 계속되고 또 우리 사회가 협력적 관계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피로감도 있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과거 성장경제에만 매달렸던 지난날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겠구나 확신하고 있어요.” 그는 지역 중심의 경제체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살기 어렵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길게 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벌어들이는 게 적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함께 나누는 구조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적게 벌어도 그걸 함께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그러면서 퇴직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다.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춘천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부는 봉사활동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그분들을 조직적으로 모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될지 그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모임이 꾸러지는 방식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힌 듯했다.

“제가 국어교사를 하다 나와서 농사도 짓고 목공도 하잖아요. 한 가지만 오랫동안 하다 나온 사람도 저처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럿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웃이 힘을 합치고 도모하면 분명히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일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할 때 그 맛이 나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는 방식 일테다. 

## 사회적기업 춘천도시농업센터 주요프로그램

문의 252-7400(춘천도시농업센터 사무실)

### 환경교육

어린이집 및 체험학습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

### 도시텃밭

도시 내 유휴지를 임차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분양(퇴계동 803번지) 도시텃밭 대안으로 실내에서 소규모로 원예 및 농업활동 가능한 텃밭상자 보급 도시농부학교 - 도시농업의 이해, 자연농업, 유기농재배법(춘주로 92)

### 목공수업

설계, 재단 조립, 마감 등 목공기초과정(퇴계동 803번지)



## 철도와 함께하는 상생의 동반자 춘천



김동석(춘천역장)

‘봄내’라는 순우리말이 더 정겨운 춘천(春川)은 이름 그대로 ‘봄’의 도시다. ‘봄·봄’ ‘동백꽃’ 등 1930년대 우리 문학사에 귀중한 작품을 남긴 춘천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유정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금병산에도 예외 없이 봄은 한창이다.

1939년 7월 사설철도인 경춘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개통된 경춘선의 출발지이자 종착역인 춘천은 봄의 새싹들처럼 철도와 함께 힘차게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도시임에 분명하다.

2010년 12월 건설된 복선전철 위를 달리는 전동열차와 함께 준고속열차 ITX-청춘은 지역의 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5년을 쉼 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2층 객차를 가진 ITX-청춘이 벌써 누적 고객이 3,000만 명이 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560만 명의 고객을 철도로 수송하였고, 그중에는 중국·일본 등 동남아 관광객과 수많은 국내 관광객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관광열차와 교육열차(E-train), 이산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피트레인과 꾸준히 운영 중이다. 코레일 본사나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호수문화열차’, ‘ITX-청춘 드림 투어’ 등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호수문화권 지자체와 공동 기획으로 축제와 지역 명승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있다.

지난해 춘천시와 코레일은 ITX-청춘 운임 인상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운임 인상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수도권 관광객 감소, 기업 활동 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별한 인 조정 폭을 당초 15%에서 5%로 최소화하여 8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초부터는 서울에서 늦은 시간대 경춘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ITX-청춘의 평일 막차시간을 밤 10시 44분으로 연장하였고, 9월 말부터는 기존 상봉역까지 운행한 전동열차가 청량리역까지 일부 연장 운행한다. 이제는 전동열차를 타고 춘천역과 청량리역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 말부터는 2012년 2월 중단된 급행 전동열차가 춘천역과 청량리역을 오가고 있다. 이번 급행열차 운행은 지난해 ITX-청춘 운임 인상에 따른 코레일의 경춘선 편의개선 합의 내용으로, 용산발 춘천행 ITX-청춘 막차시간 연장, 일반 전동열차 청량리역 연장운행에 이은 합의 이행의 마지막 결과물이 되었다.

지난해 7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춘천은 국토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중간지점이 되었다. 이와 연계해 춘천권역은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지역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가치 창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철도와 함께하는 상생의 동반자 춘천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참고 : 춘천역에서는 굴봉산역~춘천역간 6개 역을 총괄관리하고 있음(24.2km)



## 봄내골 역사수첩 ④

추억의 다방이야기

# ‘다방’ 그 곳에서 삶을 이야기 했다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앞뒤에 죽음과 이별을 두고 좌우에 유량과 기한을 이끌며, 그래도 아는 얼굴, 커피 한 잔이 있어서 즐겁단 말인가. 그래도 즐겁단 말인가. 무엇이 즐겁단 말인가. 하고 충구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이 말을 끄기 위하여 또 한번 한숨을 길게 뿜었다”

김동리 소설 〈밀다원시대〉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소설 속 주인공 이충구는 다방에서 피난 온 예술가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950년대 중반 다방은 전쟁으로 삶이 어려워진 예술인과 지식인들이 모여 서로 답사를 나누며 위안을 받는 장소이자 새로운 창작물을 구상하는 공간이었다. 〈편집자주〉



## 다방은 춘천 문화계 인사들의 사랑방 구실

사회가 변화하며 다방의 문화도 변화했다. 1960년대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격동의 시대였다. 혼란한 시기를 살아낸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다방으로 모였다.

김영기 문학평론가는 1980년 6월 13일자 경향신문 ‘문화산책’에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춘천 예맥다방은 지역문화계 인사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며 작품을 구상하기도 하고 김유정문인비 건립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에는 ‘대원다방’과 ‘약속다방’, ‘우미다방’, ‘대영다방’ 등을 찾았고, 1980년대 들어서는 ‘우미다방’, ‘심지다방’에서 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문인이나 서울에서 내려온 문인들은 대체로 ‘심지다방’에 들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재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전원다방 홍망사에서 “전원다방이 춘천 문화의 중심지로 문화예술인의 메카이자 등지 역할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 명동의 ‘카페 오페라’에서는 매월 한 차례 수향시(水鄕詩) 낭송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변에 있는 다방과 살롱 등에서 수시로 음악감상회가 열리기도 했다.

유현옥 (사)문화커뮤니티금토 대표는 ‘춘천의 근대거리를 거닐다’에서 “다방은 지식인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했으며 문인들의 모임이나 시화전, 미술 전시 등을 열어 대중들과 소통하는 유용한 공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카페 올훼의 땅’은 30년 전통을 이어 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대표적인 문화아지트이다. 1980년대 고전 음악다방 ‘바라’로 시작해 1990년대에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상호를 가진 문화예술 카페였으며 2011년 우종성 대표가 가게를 맡아 그 명맥을 잇고 있다.

- 1 1980년대 고전음악 ‘바라’를 시작으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옥천동 ‘카페 올훼의 땅’
- 2 1960년대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낙원동 ‘예맥다방’ 자리





3

### ‘커피’의 대중화 그리고 ‘다방’의 전성기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에 의해 커피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며 커피 대중화의 시작을 알리는 기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일부 지식층에서만 애호하던 커피가 인스턴트커피의 영향으로 대중화되며 다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방은 비공식적인 사교장으로 사업가와 공무원, 교수, 예술가 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사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 곳이기도 했다. 1970년대 통기타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며 음악다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멘 젊은이들이 다방에 모여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웠다. 당시 재치 있는 입담을 늘어놓던 잘생긴 디제이들은 요즘 연예인 인기 에 버금갔다.

젊은이들은 명동 부근에 있던 ‘설파다방’, ‘마로니에’, ‘전원다방’, ‘영타임’, ‘용다방’, ‘아그레망’ 그리고 공지천 부근에 있던 ‘이디오피아의 집’, ‘에메랄드’ 등의 음악다방으로 모였다. 라디오로 들었던 음악을 전축을 통해 듣는 재미도 있었다. 중장년의 사업가와 공무원들은 중앙로와 요선동 부근에 있던 ‘십지다방’, ‘춘천커피’, ‘태양다방’ 등에 모였다.

특이하게 ‘이디오피아의 집’은 당시에는 생소한 커피생두를 로스팅해 판매하는 ‘로스터 카페’였다. 공지천으로 나온 연인들은 ‘이디오피아의 집’을 찾아



4

3 1960년대부터 요선동을 지키고 있는 ‘춘천커피’의 모닝커피, ‘계란 동동 커피’에서 삶은 계란과 빵이 함께 나오는 커피로 바뀌었다.

4 새벽이면 미리 커피를 내려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커피를 담은 주전자를 따뜻하게 데워진 물에 담가두었다가 손님이 다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살짝 온기를 더한 커피잔에 담아 나간다.

5 1960년대 요선동 모습. 뒤로 ‘다방 녹연’이 보인다. 모닝커피를 마시고 출근하는 손님들도 있었다. <사진제공 이상현>



5



6 효자동 카페 '커피안'에서 젊은 디제이가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아 저녁 방송을 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명동 음악다방을 중심으로 디제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7 카페 '커피안' 게시판에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가득하다. 예전 다방에서는 종이에 메모를 남겨 서로 연락을 하기도 했다.

원두커피를 즐겼다. 당시 강원대와 춘천교대, 성심여대, 춘천간호전문대생과 서울에서 원정 온 대학생들의 미팅장소이기도 했다.

당시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새벽 청소를 마친 공무원들이 다방을 찾기도 하고, 새벽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방 문을 열고 모닝커피와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초창기 다방에서는 계란을 동동 띄운 커피가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사업가들의 사무실 구실을 하기도 했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 다방전화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던 다방종업원들은 그들의 비서 노릇도 한 셈이다.

### ‘다방’ 새로운 길을 찾다

1976년 커피믹스와 1978년 커피자판기의 등장으로 다방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방 주인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젊은 고객이 많은 다방들은 인기 디제이를 영입해 전문 음악다방으로 변신했다.


반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방들은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스포츠 중계와 뉴스를 틀어주며 마담과 종업원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1980년 후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적극적인 문화개방이 이루어지며 이국적인 형태의 커피숍들이 생겨났다.

1990년대에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수요가 생기며 ‘커피전문점’들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점점 커피의 품질을 따져 마시는 문화가 급속히 퍼져 나가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원두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생겨나며 블랙커피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다.

1997년 IMF시기를 지나며 새로운 형태의 커피전문점이 거리에 나타났다. 환율이 높아지며 수입원두 가격의 상승으로 생두를 직접 볶아 파는 ‘로스터리카페’가 바로 그것이다. 2000년대는 ‘커피전문점의 춘추전국시대’로 볼 수 있다. 일부 마니아층에 국한되었던 원두커피를 일반인도 즐기는 문화로 바뀌는 시기이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원두커피 브랜드가 소개되며 자신의 취향에 맞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다방은 소통의 공간이었다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과 팝송 하면 떠오르는 공간이 있다. 그곳은 다방이다. 다방은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공간이 아닌 서로 모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장소였다. 다방이 순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 ‘커피수입 자유화’ 이전까지 커피는 사치품으로 인식되며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또한 1980년대 일부 시골 다방들이 배달서비스를 강화하며 ‘티켓다방’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기도 했다.

다방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다양한 커피전문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드카페, 타로카페, 음악, 책, 음식, 스킨케어, 족욕 등이 커피숍에 스며들고 있고 역사적 유물과 예술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예전에 프림과 설탕을 첨가한 인스턴트커피에서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는 여러 종류의 진정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 스커트의 매력



반바지만으로는 습기와 열기를 당해 낼 수 없는 한여름엔 스커트를 입는 여자들이 부럽다. 그렇다고 그걸 입을 생각은 안 했지만, 스코틀랜드 남자 혹은 독특한 세계에 탐닉하는 디자이너의 주문을 받은 남성 모델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들 금남의 영역을 훼손할 수 있을까.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성역할을 나누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남자 대부분은 스커트는 여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열썬도 안한다. 나 역시 스커트는 거들떠도 안 봤고 내 삶과는 무관할 줄 알았는데 사람의 운명이란 단정할 수 없는 법. 빈티지 숍을 운영하다 보니 여성 고객들도 많이 상대해야 하고, 그녀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둘 스커트를 들여놓게 된 게 스커트를 자주 만지는 인생이 됐다. 처음엔 스커트면 으레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플레어스커트에 랩스커트, 룡스커트, 미니스커트, 울스커트, 데님스커트... 모양과 소재와 길이와 색깔과 패턴이 다른 스커트를 접하다 보니 그 세계도 별천지였다.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걸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 남성복이 단순명료라면 여성복은 변화무쌍이다. 스커트는 여성의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일등공신이다.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성의 실루엣을 수시로 바꿔주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다.

원시시대의 스커트라야 동물의 가죽이나 나뭇잎을 엮어 만든 원통형이었겠지만, 이후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근대는 여성들에게 바지도 허용했고, 패션에도 큰 혁명이 일어나며 미니스커트도 등장했다. 다른 옷들에 비해 스커트는 천의 소재와 질감, 길이와 폭, 다트와 플리츠, 각종 패턴과 패치워크 등등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고난이도의 작업을 요하는 것에서, 난해해서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요즘의 패션쇼에 등장하는 스커트까지 이들의 변신은 끝이 없다.

중요한 건 스커트(아, 디바이디드 스커트-일명 치마바지는 제외)는 원뿔이나 원기둥 모양인데 펼치면 원이나 사각형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면으로 봤을 때도 그림이고 다시 입체로 돌려보내도 그림이 되는데, 이 점에서 여성들은 그림을 감거나 두르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아쉽게도 스커트를 입는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느낌이다. 여

성성 안에 너무 가둔다는 점 때문에, 다리가 굵어보여서, 종아리가 못 생겨서, 다리에 흉터가 있어서, 키가 짧아보여서, 활동하기 불편해서, 날씨가 추워서 안(못) 입는다는 여성들이 많다. 그런 이유 말고 남성들의 성적 시선이 불편해서 안 입는 경우도 있다. 남성들의 시선이 성적 판타지로 발전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커트는 보여주고 보이는, 노출증과 관음증의 경계에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드러내고 싶지만 다 보아서는 안 되는 이중성을 품고 있는 셈이다. 하의실종 초미니스커트는 차치하고 남성들의 관음증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림에 대한 관찰력과 감상능력을 허용하는 스커트를 입어보면 어떨까.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구사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말이다. 더군다나 봄이다. 산과 들이 새싹과 꽃으로 그림을 그릴 때, 남자와 여자를 떠나 인간을 대표해서 멋진 그림을 걸쳐주시면 안 될까. 사실적이든 추상적이든, 디자이너의 특별한 세계가 담긴 예술작품을 취사선택해서 자신의 것으로 연출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남자들은 흉내도 못 내는 영역이니 어깨를 으쓱하면서. ▶▶▶



글 손윤권(파워 투 더 피플 power to the people 대표)

헌책과 대중기요LP를 수집하며 현대문학사를 공부했고 기지촌소설을 다룬 박사논문을 썼다. 인생의 전환기 40대를 맞아 대학에서 가르치던 일을 접고 빈티지의 맛과 멋을 공유하기 위해 셀렉트 숍을 열었다. 독특한 디자인과 장인정신이 빛나는 물건들에 탐닉하면서 손님들과 수다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신문은 이제 쓸모없을까



한때 “그거 신문에 났어”라고 하면 더 이상 논쟁이 필요없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신문사에서 야근을 하다 보면 술 취한 목소리의 독자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친구들과 말싸움하다가 누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하는데요,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친구들과 술 마시다 내기했으니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5·16 쿠데타 때 한강다리를 건너 부대가 해병대였나요, 공수부대였나요?”

아는 사실은 바로 대답해주지만 잘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자료실로 달려가 기사 스크랩이나 연감 따위를 뒤져 정답을 찾아야 했다.

신문과 나의 인연은 꽤 역사가 깊다. 초등학교 시절 1년가량 어린이신문을 구독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신동우(1936~1994) 화백이 그리던 연재만화 ‘풍운아 홍길동’ 정도다. 길동이 무술 스승의 가르침대로 텃밭에 옥수수를 심어놓고 새순이 날 때부터 매일 그걸 뛰어넘는 연습을 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옥수수가 쑥쑥 자랄수록 길동의 점프 실력도 늘어서 나중에는 어른 키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

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내용. 아주 그럴 듯해 보여서 실제로 따라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신문배달을 했다. 처음엔 강원도청 아래 K일보에서 신문을 싸게 사 명동·요선동 거리를 돌며 행인들에게 파는 일을 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고 숫기마저 부족했던 탓에 며칠 만에 접고 말았다. 대신 새벽에 발간되는 다른 신문의 지국을 찾아가 배달 일을 맡았다. 새벽마다 묵직한 신문뭉치를 엮구리에 끼고 안개 자욱한 옥천동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추억이 생생하다.

대학 졸업 후 교사, 광고회사 일을 잠깐씩 하다 정착한 게 신문기자 직업이었다. 31년이면 상당한 세월을 보냈다고 싶었는데 올 들어 다시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의 고른 유통과 배달을 돕고 중앙지·지역지의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일을 새로 맡아하고 있다. 질긴 인연인 셈이다.

과거의 신문은 여론 형성의 중심축이었다. 정치·사회면의 날카로운 기사와 사설은 물론 문화면까지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물일곱 새파란 나이의 최인호(1945~2013)가 연재하던 소

설 〈별들의 고향〉의 엄청난 인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이다. 심지어 날짜가 지난 신문도 뒷간 화장지 대용으로 알뜰히 대접받았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종이신문에 조종(用鐘)이 울린 지 이미 오래됐다. 세상을 보는 창이 신문·텔레비전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셈인데, 그럼 우리는 더 스마트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요즘 네이버 등은 가입자의 성향을 빅데이터 기술로 파악해 좋아하는 뉴스만 추려 보여주는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친다. 평소 싫어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분야의 뉴스와 의견은 처음부터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성향의 뉴스만 보게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의견끼리 소통하게 된다. 결국 옳고 그름(진위)을 성찰할 기회는 사라지고 조건반사적인 찬성만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갈지 끔찍하지 않은가.

신문도 잡지도 책도 다 좋다. 종이에 인쇄된 글을 사랑하자. 활자(活字)라는 단어에 왜 ‘살 활(活)’자가 들어 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 당첨



글 노재현(신문유통원장)

중앙일보에서 도쿄특파원, 문화부장, 논설위원으로 일했고 중앙박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 신문유통원장이자 정부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위원이다. 춘천 출신. 명동 전원다방에서 DJ를 하던 청년 시절을 가끔 그리워한다.

## 이웃사랑 함께하는 춘천시민 춘1000인 천원나눔 계좌갯기 운동 선포식 및 걷기대회

시민들이 매달 1,000원의 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춘1000인 천원나눔 계좌갯기’ 범시민운동 선포식 및 걷기대회가 3월 10일 오전 11시 공지천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시민과 봉사 및 복지단체 회원, 최동용 시장과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 4,425명, 1만4,839개의 나눔계좌가 신청접수됐으며 올해 목표액은 2억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복지정책과 ☎250-4184〉



♥춘천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석분, 김형우, 박남기, 박선남, 장덕범) 5,000계좌  
 ♥춘천시청 직원 일동 3,000계좌 ♥춘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1,000계좌 ♥춘천우체국 직원 일동 155계좌 ♥강호택시(대표 임재선) 동춘택시(대표 임영수) 80계좌 등 많은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 졸업생과 퇴임교수의 아름다운 기부

한림대 씨름부 출신 오창록·이민호 씨 체육부 발전기금 1,000만원  
 정년퇴임 사회학과 유팔무 교수, 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기부

한림대 졸업생과 정년퇴임을 맞은 교수가 학교를 떠나며 발전기금을 기부해 캠퍼스에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주인공들은 지난달 졸업한 한림대 씨름부 오창록(체육학부·23), 이민호(체육학부·23)씨와 지난달 정년퇴임 한 사회학과 유팔무 교수.

오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관왕으로 화려한 시즌을 마친 한림대 씨름부의 주역들로 졸업과 동시에 영암군청 씨름부에 함께 입단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감과 동시에 후배들을 위한 1,000만원의 체육부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오창록 씨는 “대학생활 동안 한림대 씨름부 선수로 몸담으며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었고, 항상 한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민호 씨도 “오랜 시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정년퇴임을 맞은 사회학과 유팔무 교수도 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유 교수는 퇴임 후 “사회와 대학가가 혼란스럽지만 평생을 몸담은 학교와 제자들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정성을 전하기로



왼쪽부터 박동진 대외협력처장, 이민호 씨, 오창록 씨, 김중수 총장, 양정수 체육부장, 남동하 씨름부 감독



유팔무 교수

했다”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유 교수는 1990년 한림대에 부임해 27년간 후학 양성과 진보적 학술운동에 앞장서 왔다. 한림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사회과학대 학장,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사단법인 강원살림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림대 대외홍보팀 ☎248-1332〉



## 이 좋은 봄날, 소리 들으러 가볼까

권나경의 경서도소리 공연 '춘화(春花)' ... 4월 1일 오후 6시 춘천문화예술회관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서도놀량사거리의 예능이수자인 권나경(사진) 씨의 세 번째 정기공연이 4월 1일 오후 6시 춘천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선아리랑과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등의 강원도 민요와 함께 신고산타령, 어디로 갈거냐, 노들강변, 송서, 배피워라 등 지역을 넘나드는 곡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춘천아리랑과 평창아리랑은 이번에 선보이는 신곡으로 새로운 의미의 민요를 만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유옥선 명창은 이번 공연에 재능기부로 참여해 올림픽 성공 기원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권나경 씨는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금상, 제3회 서도·경기도민요대회 명창부 대상,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춘천에서 우리소리예술원을 운영 중이다.

문의 010-7636-2313



## 풍물시장서 만나는 봄맞이 농악 한마당

4월 1일 지역 풍물팀 등 합동 공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춘천농악인 대화합 한마당이 4월 1일 풍물시장 야외잔디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춘천뒤뚜루농악보존회(회장 김창수), 사암리농악보존회(단장 오선주), 우두농악보존회(회장 김복한), 맥국터농악단(회장 강경민), 석사3지구노인정농악단(상쇠 주영흡) 등 마을농악단 5팀과 국악원설장구(지도 이영단), 땅울림(대표 최미선) 등의 춘천풍물팀이 모여 한 판 노는 행사로 농악팀 논산두레연합풍장과 민요를 부르는 다울소리도 초청되어 흥을 돋운다.

오전 10시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농악단과 풍물팀, 대학생 풍물팀, 초청민요팀 등이 돌아가며 판을 벌이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공연팀이 모두 모여 풍물시장을 한 바퀴 도는 길놀이를 펼친다. 이날 행사는 3시까지 이어지며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농악단 연합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춘천뒤뚜루농악보존회의 상쇠 한춘녀 씨는 “춘천은 오랫동안 마을 농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고장으로 이번 농악대축제를 통해 그간 전승 되어온 마을 농악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연례적인 농악연주행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10-8897-6462

## 춘천에 전문 팔씨름체육관 생겼어요

작년에 강원대 정문 인근에 개관, 세계팔씨름연맹(WAF)의 국제스포츠



2016년 11월 춘천에 팔씨름을 연마할 수 있는 체육관이 강원대학교 정문 부근에 생겼다.

팔씨름을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팔씨름은 엄연히 세계팔씨름연맹(WAF)이 있는 국제스포츠이다.

효자동에 팔씨름체육관을 연 김우현(38) 씨.

‘춘천팔씨름팀(이하 춘천팀)’ 회장이기도 한 그는 “팔씨름은 단순히 힘과 근육의 크기만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엄격한 대회 룰을 지닌 역사 깊은 스포츠”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과 팔씨름을 즐기고 싶어 3명이 함께 시작한 춘천팀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나 현재는 13명이다. 김 회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지닌 팔씨름 강자들이다. 팀원 중에는 현재 팔씨름 프로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32)씨도 있다. 팔씨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김 회장은 이벤트 성격의 팔씨름대회에 참가하며 흥미를 느껴 정식으로 기술을 익혀 보고 싶어 팔씨름을 시작했다. 이현승 선수는 팔씨름에 자신이 있어 참가한 2010년 G1 강원도팔씨름대회 첫 경기에서 탈락해 본격적으로

기술을 익혀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춘천팀 회원들이 팔씨름을 시작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팔씨름 기술을 정식으로 배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씨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과 심판 양성 등을 하고 있다. 인기는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전국 팔씨름 동호회 모임 카페에 등록된 팔씨름 동호인 수는 1만 5,000 여명 정도로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팔씨름은 씨름과 같이 기술을 통해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승리를 이끌기도 한다.

김 회장은 “한 번도 팔씨름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분들은 꼭 찾아와 보라”며 “언제든지 환영하며 팀원들 대부분이 동호회 활동을 하기 전에 팔씨름에는 모두 자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팔씨름을 못하던 사람들도 기술을 배우면 평소 못 이기던 사람도 금방 이길 수 있으니 찾아와 배워보라”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 팔씨름체육관 위치 : 강원대 정문 강원지방병무청 맞은편 비봉회원 골목, 추억찾기 지하

▶문의 : 010-8312-1895

정승환 명예시민기자



## 탁구대회로 6년째 이웃돕기 실천 ‘2.5g의 사랑’

탁구지도강사 이수은 씨

“파이팅! 파이팅!” 열띤 함성이 퍼지는 효자1동 주민자치센터의 탁구 교실에 들어서자,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채 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은 뜻밖에도 70, 80대의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의 탁구 솜씨가 놀랍다.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수은(48)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효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라켓을 잡은 이 씨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탁구와 함께 살아왔고 6년 전부터 아예 탁구장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지도 강사에 나섰다. 탁구 보급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후평 2·3동, 소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습 중이다. 이 씨는 2011년 생활체육지도자 탁구심판 자격증을 획득했고, 2014년엔 국제공인 심판 자격증도 땀다. 2015년 강원도 연합회장기 배 우승, 2016년 강원도탁구 최강자전 우승, 대한탁구협회 회장기 대회 3위를 차지하는 등 모두 126회에 걸친 탁구 경기대회에 출전했다. 또 2014년과 2016년에는 세계베테랑 탁구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했다.

이 씨는 “어르신들이 나이를 잊고 탁구를 꾸준히 해서 수준급에 오르는 것을 볼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고, 조금만 더 하면 수준급에 오를 텐데 그동안을 못 참고 중도 포기하는 어르신이나, 청소년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씨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이 씨는 지난 1월 봄내체육관에서 불우이웃돕기 탁구경기를 열고, 여기서 얻은 참가비 전액을 홀몸노인과 청소년 가장을 위해 쌀 10kg 130포를 효자1동을 비롯한, 후평1·2·3동, 소양동주민자치센터와 춘천호스피스에 기증했다. 이런 선행이 벌써 6년째다. 이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쌀 나누기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 했다.

“저 자신이 늙어서 활동을 못 할 때나 되면 그만둘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2.5그램의 탁구공과 함께 행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힘뻑 웃었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 옷, 직접 만들어 입어볼까

제일종합시장 홈패션 강좌 인기

요즘 죽림동 제일종합시장에서는 제이와이케이(JYK) 홈패션 스쿨에서 열리고 있는 제일문화센터 재봉교실이 인기다. 올해 4년 차로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시에서 재봉틀을 기증받아 시작된 강좌이다.

기본 수업의 경우 석 달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6~7개의 작품을 만든다. 한 달에 2만원이라는 저렴한 수강료로 홈패션 기초반과 중급반, 신생아용품, 아이옷, 성인옷반, 퀴트, 생활한복반 등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수준별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 수업별 10명 정원으로 소규모로 진행되어 강좌를 꼼꼼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재봉수업과 함께 재래시장을 맛보는



즐거움은 큰 덩이다.

전체 강좌를 책임지고 있는 정윤경 씨는 “재봉틀 없이 재봉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곳”으로 “3개월 기본 수업을 들어보고 재봉틀 구입을 천천히 생각해 보아도 늦지 않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문의 [cafe.daum.net/codilife](http://cafe.daum.net/codilife)

서은영 명예시민기자

## 흥부의 제비가 되어 돌아온 김 약사의 기부

대룡산 약국 김윤성 약사 올 2월 5,000만원 상당 의약품세트 전달 훈훈

“9시 이후에나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수화기 건너편으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동네면 거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성(41) 약사와 인터뷰 시간을 잡기 위해 건 전화였다. ‘저녁 9시’ 전까지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단다.

김 약사는 지난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3,000만여 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후원했고, 올 2월에는 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세트 7종 1만 8,000여개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대로변에 자리한 약국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의례히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얼마 전 소아과가 개원하면서 약국은 전에 없이 바빠졌다고 한다.

“2007년 개업해서 11년째인데 초창기 3~4년은 무척 힘들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기부를 하자고 했어요. 우리 부부는 예전부터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부를 하면서 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부부는 곧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주변의 복지단체부터 알아봤다. 여덟 군데를 직접 연락해 비상약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약을 가지러 온 곳은 2곳뿐이었다. 우연히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있어 먼저 연락을 취했다. 처음 생각은 이 지역 부근의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일이 커졌다며 멋쩍게 웃는다.

“돈을 직접 기부하고 싶지 않아요. 약사로서 최대한 기부를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게 돈보다 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10만원과 약으로 10만원어치를 약사로서 더 많이 챙겨 드릴 수 있으니까 약을 지원하기로 처음부터 생각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기부를 시작한 지도 7년째. 약국경영이 어려울 때 시작했던 기부는 다리를 고쳐준 흥부의 제비였을까. 4년 전부터 약국이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지난달부터는 직원이 대폭 늘었다. 주변에선 ‘좋은 일 하니까 복 받는 거’라고 말씀해주신단다. ‘기부한 만큼 그만큼 돌아오더라’는 진리를 몸소 깨닫고 실천 중이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당분간 지금의 형태로 기부를 계속할 생각이며 지금은 비록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봉사나 기부는 못 하지만 약사로서 뜻을 같이하는 약사회 일원들과 함께 재능기부나 봉사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 교통카드 사용 150원 할인·40분 무료 ‘일석이조’

혜손카드로 승차지연 등 타인 불편주지 않게 보관 잘 해야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이로움이 있어 이용객이 늘지만 카드 소지자가 관리를 잘 해야 큰 도움이 된다.

카드 한 장으로 현금 소지 위험과 거스름돈 교환의 번거로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50원의 할인과 40분 이내 탑승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편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편익을 주는 카드라 할지라도 소지한



사람의 부주의로 승하차 또는 환승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대동운수 영업과장 황 현 씨는 “춘천에 총 124대의 시내버스에 단말기를 부착 운행 중인데 카드의 손상 등으로 다른 승객이 뒤에서 서서 기다리게 되고, 다음 정류장 승객에게도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카드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 불편사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 위급하면 ‘안전지킴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동유괴, 폭력 등 위험 ‘안전지킴이’ 있어 든든, 춘천 관내 40여 명이 2인 1개조로 순찰 등 활약 중

아동들의 개학을 맞아 ‘아동 안전지킴이’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 공원 등에서 집중적인 순찰을 하다 유괴나 폭력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발견 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아동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석사동 일대를 담당하는 정영복 씨와 문순복 씨는 “위험을 발견하거나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동지킴이이나 학교 주변 통학로 또는 공원 주변의 편의점, 약국 등 ‘지킴이 집’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고, 가족은 아동에게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노출되지 않게 항상 착용하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며 협조를 구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춘천에 40여명의 지킴이와 113개소의 지킴이 집이 지정돼 가까운 경찰 지구대와 비상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고 했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 가족과 함께 특별한 나무 심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특별이벤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원장 정용기)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름으로 특별이벤트를 펼친다.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를 갖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이다. 나무는 4월 1일(토)과 10월 28일(토) 두 차례에 걸쳐 각 100그루씩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 식재할 예정이다.

가족이나 개인, 연인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3월과 4월에 걸쳐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의 연간 자유 입장권, 기념품 증정

등의 다양한 혜택은 물론 박물관 앞에 새로 설비하는 보도블록에도 이름을 새길 수 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연간 자유입장권 후원도 가능하다. 수종은 감나무와 체리나무 중 한 그루를 택하면 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감꽃목걸이(5월), 감잎차 만들기(6월)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한 가족당 10만원(1그루).

문의 강원정보문화진흥원 gimc.or.kr 245-6416.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 시민제보

## 현수막 게시대 주변 폐 끈 정리 필요

ㄷ면사무소 옆 현수막 게시대 주변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남은 끈이 전봇대와 게시대 기둥 등에 엉켜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면사무소를 자주 찾는 한 민원인은 “면사무소를 지날 때마다 현수막 게시대를 눈여겨보는데 현수막을 철거한 후 끈은 그냥 놔두고 주변의 전봇대와 게시대 기둥에 칭칭 감아둔 채 방치하고 있어 보기에 안 좋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지우 명예시민기자





김유정 80주기 추모제

동백꽃, 그 알싸한 그리움

3월 29일 오전 11시 실례마을 김유정문학촌 생가, 다양한 행사 열려

한국 단편소설의 대표작가인 김유정 선생 80주기 추모제가 3월 29일 오전 11시 신동면 증리 실례마을 김유정문학촌 생가에서 열린다.

(사)김유정기념사업회(이사장 전상국)가 주최 주관하는 이날 추모행사는 식전 추모공연으로 대금연주(김기옥), 현무 살풀이춤(박계순)에 이어 동백꽃헌화, 분향, 헌다, 김유정 선생 약력 소개, 추모사, 문집봉정, 추모작품 낭송, 추모공연(테너 오성룡, 베이스 심기복, 소프라노 민은홍), 우안 최영식의 <동백꽃>전과 춘천문인들의 시화가 전시된다.

봉정문집은 <동백꽃 그 알싸한 그리움>이란 표제하에 춘천문인들의 김유정 관련 작품과 초대작가 작품으로 발간된 문집이다.

동백나무(생강나무) 가지마다 알싸한 향기를 발하는 노란 꽃 몽우리가 춘천의 봄을 열고 있는 계절, 올해는 닭의 해이다. 김유정 소설 '동백꽃' 작품 속에 닭싸움으로

꽃 연정이 움트고 선생이 병을 고치려고 고아 먹을 약 닭 값 100원 마련을 위해 번역할 탐정소설을 구해줄 것을 서거 수일 전 필승(안희남)에게 부탁했던 닭의 해이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춘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주최 측이 분주하다.

문인협회 춘천지부 심창섭 지부장은 “한국문학의 별, 춘천의 자람 김유정 작가 80주기 추모행사에 작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엄마가 읽어주시는 책,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소양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동아리 '시나브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책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소양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동아리 회장 안경희(46) 씨는 4년 전 교내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학부모 독서동아리 구성의 권유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뜻있는 몇몇 엄마들을 모아 '시나브로'라는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참여하는 엄마들이 많지 않아 회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1년이 지나면서부터 8명의 정회원이 모여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도서관에 모여 독서토론을 한다.

초기의 단순 책 읽어주기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선정을 토대로 독서를 통한 회원 간 교류는 물론 아이와 부모가 정서적 교감을 나무면서 소통의 도구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3년 전부터는 돌봄교실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학부모들이 교대로 책 읽기에 참여하는데 마치 동화구연을 하듯 아이들의 호기



심을 자극하며 귀에 쏙쏙 들어가게 재미있게 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내 책 축제 기간에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 및 인형 만들기 등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책 관련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황지우 명예시민기자



## 고등학생들 연극무대에 오르다

청소년극회 '나우' 학생들이 직접 완성한 창작극 열연

고 3년)의 연기로 웃음바다를 만들기도 했다. 향단이 역을 맡은 이유민(유봉여고 1년)의 해학 연기와 꽃님이 역의 정은지(한샘고 3년) 학생 열연에 가슴 뭉클했던 연극 무대.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무대에 오른 단원들은 청소년의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3개월 동안 준비하며 다툼도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목표 하나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청소년극회 '나우'는 학교생활과 청소년 시기인 '지금'을 즐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잃을 때면 한두 번의 공연이지만 연기에 몰두하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어간다는 단원들.

연출을 맡은 김지희(소양고 3년) 양은 "여러 친구들을 만나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공연을 올린다는 점에 매우 의미가 있었고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연출과 조명감독, 음향과 무대 위 배우도 모두가 학생인 청소년극회 '나우'(회장 김희원). 유봉여고, 강원고, 봉의고, 강원사대부고, 소양고, 성수고, 한샘고에 재학 중인 13명의 학생들이 2월 25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꽃가람>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완성한 창작극이다.

친구가 사라지고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졸업 후 함께 찾아가는 우정이 깃든 작품. 청소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세상을 사랑과 우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내용을 연극화했다. 작품 속의 박덕구 역을 맡은 박재화(성수

## 움직임에 관심 있다면 '춘천마임학교' 문을 '똑 똑'

프로젝트 시공간, 4월 1일~6월 11일 ... 매주 2회 마임학교 운영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움직임 씨어터 프로젝트 시공간(상임연출 노영아).

이곳에서 전문적인 마임예술을 만날 수 있는 춘천마임학교를 운영한다.

춘천의 대표축제인 마임축제는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몸짓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2회 마임예술을 배울 수 있다. 움직이고 표현하는 마임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춘천마임학교 문을 두드려 보자. 관심 있는 일반 성인이면 참가할 수 있다.

봄내극장과 프로젝트 시공간 스튜디오, 강원공연예술 연습공간 등에서 교육을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영아의 움직임 속으로', '유진규의 작품 머리카락을 만나다', '유홍영의 오브제를 활용한 마임', '고재경의 마임을 만나다', '다이스케의 아크로



바틱의 기본'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개인 또는 그룹 작품을 창작하게 되고 이 작품은 6월 17일 스테이지 낄뉵(워크숍 발표회)을 통해 관객과 만날 수 있다. 춘천마임학교에 참가를 희망하는 전문배우 및 시민은 프로젝트 시공간 블로그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프로젝트 시공간 ([http://p\\_space\\_time.blog.me](http://p_space_time.blog.me)) / 010-6377-0324>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끝날 것 같지 않던 긴 터널과 같은 겨울이 끝났다. 이어 가만히 올라오는 봄의 기운. 기다렸다는 듯이 마임리스트 유진규의 공연 소식도 들려왔다.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봄내극장에서 <유진규 마임인생 45주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었다.

“3년만 이죠. 그동안 춘천에서만 안 했을 뿐이지 공연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번 공연은 그냥 공연이 아니라 45주년이 되는 해라 저 개인도 정리하고, 그동안 했던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 의미가 아주 큼니다”

첫날 공연은 <빈손>으로 1998년 초연됐던 작품이다. <빈손>은 가장 유진규적인 마임이자 가장 한국적인 마임으로 손꼽힌다. ‘무엇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가질 수 없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작품이다. 삶과 죽음,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탐미를 놓지 않는, 그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특히 뇌종양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던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가지고

## 유진규, 그의 45년 마임인생

기념공연 <아름다운 사람> 봄내극장에서 사흘간 열려

온 작품이라 더 큰 울림을 준다.

<빈손>과 더불어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셋째 날 관객과 만난다.

“1979년 10·26 이전에 기획하고 있던 작품이었어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 하면서 우리의 날개를 꺾어버렸는데 그래도 퍼드득퍼드득 날으려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었죠. 10·26이 나면서 갑자기 억압하는 존재가 사라져 버려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미적인 것이 아닌 어떤 상황이던 끊임없이 존재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에 연극을 시작한 그가 20대에 틀을 만들어 완성한 작품이다.

이 밖에 1980~90년대 초반의 시대상을 조명했던 <머리카락>(1987), <밤의기행>(1991), <견망중>(1992) 등의 작품도 다시 무대에 오른다.

“내 작품은 대부분 시대상을 담고 있어요. 공연 당시의 시대와 상황 속에 나의 모습을 담았건 건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그것이 내가 풀어나야 할 과제예요” 14주간 광화문에서 몸짓으로 촛불을 들기도 했던 그였다. 혹 피로가 누적돼 공연을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그러자 ‘큰 거 끝나면 공허감이 생기는데 차라리 바쁜 게 낫다’고 바로 대답한다.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공간은 오로지 나의 공간입니다. 내 영역은 어딜 가도 있어요”

인터뷰를 끝내며 그와 ‘폐친’,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의 친구를 맺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개 글이 참 유진규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 로맨틱 춘천 문화예술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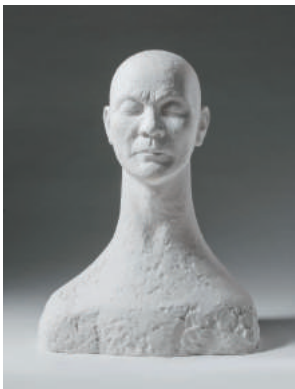
### 축제극장 몸짓 기획공연

〈춘천구경〉 가무악패풍(4.1) 전문 민요단체, 강원지역 아리랑과 창작아리랑 소개  
 춘천시립교향악단(4.21)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바흐의 브  
 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훈남스(4.22) 어쿠스틱양상블 전석 1만원, 만 7세 이상 입장가능. 문의 259-5821

〈라시예스타〉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사진)

다수의 세계 권위의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한 더블베이스 연주자, 피아니스트 박진영,  
 베이스스트 권용희가 참여해 재즈, 클래식, 자작곡 등을 연주한다. 전석 1만원, 만 7세  
 이상 입장가능. 문의 259-5821



### 권진규미술관

1층 기획전 〈백윤기조각전〉

젊은 날의 초상 권진규오마주  
 (사진) 등의 자소상, 아이, 소 등  
 31점. 4.1~27. 2층 〈권진규, 침  
 잠의 시간〉 5.28까지. 연중무휴  
 10시~19시. 성인 1만원. 동면  
 금육길 228.  
 문의 243-2111

### 갤러리튼

예술가 후원 프로젝트 〈SEE ART展〉 4.4~4.30. 구영웅, 신리라,  
 이재선, 박성림, 김민주, 김현주, 이영걸, 이상용, 신상철, 이경옥. 무  
 료.  
 문의 245-6411

### 창작공간 아르쉴

〈7기 입주 작가 릴레이 개인전(사진)〉 4월 6일부터 일주일 간격  
 으로 5주간. 이호욱(바람길), 송수연(죄업이 완성된 시대), 조윤국(비  
 밀과 균형의 공간), 홍나겸(백색소음), 마혜련(생명의 온도) 순. 10시  
 ~18시. 무료. 효석로 9번길 13.  
 문의 259-5835

### 춘천문화원 의암전시실

〈토울회 회원전〉 도자기 입문 10년차 회원들의 7번째 그룹전.  
 4.21~4.27. 박연희, 정숙화, 김길순, 이경자. 문의 254-5105

### 이상원미술관 기획전

〈부모(父母)전〉 20세기의 거칠고 막막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온 어  
 린들의 고단한 모습. 4.20~5월 말. 10시~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성인 6,000원. 사북면 화약지암길 99.  
 문의 255-9001



### 강원도립극단

〈메밀꽃 필 무렵(사진)〉 동명의 소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각색  
 하여 연극으로 담아낸 작품. 평창동계올림픽 범업조성일환 제작. 각본 정  
 범철, 연출 윤정환, 배우 손병호, 양흥주 외. 4.21(금) 오후3시-외국인 대  
 상 특별공연, 22(토) 오후 4시, 저녁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석 무료.  
 만 7세 이상 관람가능. 문의 259-5847(춘천시문화재단)

### 춘천시립합창단

〈모닝콘서트 휴가다〉 해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르네상스, 바로크  
 합창음악. 4.21 오전 11시. 춘천문화예술회관 로비. 전석 5,000원.  
 문의 259-5874

유진규 마임인생 45주년 〈아름다운 사람〉 4.10~12. 오후 8시. 봄내극  
 장. 70석 한정. 예매 1만5,000원(인터파크), 현매 2만원.  
 문의 010-5397-8353(오픈더아트) 〈관련기사 48면〉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 | 손윤재(여아)  
**부모** | 손화태(아빠), 이연경(엄마) / 동내면  
**태명** | 쏘이(쏘매난 이쁜이)  
**태몽** | 금 악세사리 꿈(할머니), 강아지 꿈(아빠)  
**생년월일** | 2015년 9월 3일



## 윤재 탄생이야기

(윤재아빠의 글임) 2014년 2월 22일에 결혼을 하고 경기도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저와 춘천에 회사가 있던 아내와는 자연스럽게 주말부부가 되어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의 배려와 사랑으로 귀한 윤재가 왔습니다. 윤재는 딸이 귀한 우리 집안에 37년만의 공주님으로 태어나 가족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윤재에게 바라는 것

윤재야~ 태어난 지 이제 18개월 밖에 안됐지만 지금껏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커줘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엄마 아빠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윤재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줬으면 더 바랄게 없어.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딸 윤재야~ ♥

**아기** | 김윤준(남아)  
**부모** | 김학현(아빠), 서은진(엄마) / 효자동  
**태명** | 여름이  
**태몽** | 뱀이 손목에 감기는 꿈  
**생년월일** | 2015년 4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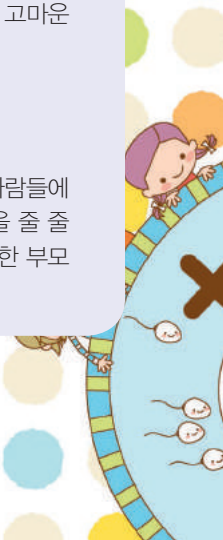


## 윤준이 탄생이야기

형은 2012년생 봄에 엄마 뱃속에 오게 되었고, 윤준이는 여름에 엄마 뱃속에 오게 되어 태명이 여름이가 되었어요.^^  
 복직한 엄마에게 갑자기 찾아와 감격도 있었지만 자궁 내에 피가 고이게 되어 무조건 쉬고 누워만 있어야한다기에 윤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고향인 춘천에 오게 되어 감사할 일과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답니다.  
 한 시간 반 만에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 준 고마운 둘째아들입니다.

## 윤준이에게 바라는 것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며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 항상 믿고 든든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출산 후 아기와 찍은 사진과 인적사항(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탄생 이야기, 바라는 것,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7만원)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ccc3@korea.kr  
※아기는 출생 후~24개월 즈음 아이입니다.

**아기 | 김민채(여아)**  
**부모 | 김희재(아빠), 박진영(엄마) / 칠전동**  
**태명 | 까공이**  
**태몽 | 흰 봉투를 받는 꿈(엄마)**  
**생년월일 | 2016년 2월 1일**



#### 민채 탄생이야기

남편의 계획 하에 찾아온 까공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걱정도 됐지만 뱃속에서 점점 꿈틀거리며 건강히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작년 1월 중순 쯤 직장 일을 마무리 하고 쉬던 차에 남편 직장에 김밥을 사들고 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고 7시간 진통 끝에 예정일보다 18일 일찍 민채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가서는 아직 마음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 눈물도 보였지만 가족들의 걱정과 응원 속에 잘 낳았습니다.

#### 민채에게 바라는 것

민채야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길 바라고, 민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도 많이 노력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줄게. 사랑해 민채야~

**아기 | 안태양(남아)**  
**부모 | 안지훈(아빠), 유은민(엄마) / 석사동**  
**태명 | 축복이**  
**태몽 | 큰 망고를 가져온 꿈(태양이 이모)**  
**생년월일 | 2016년 4월 6일**



#### 태양이 탄생이야기

언제든 와주기를 기다렸었는데 아빠 엄마만난 기념일에 찾아온 축복같은 아이라서 축복이에요. 10달 뱃속에 있는 동안 폭풍 성장을 해서 38주 6일에 태어났는데 4.4kg 튼튼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 경기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도 했지만 큰 문제없이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 태양이에게 바라는 것

태양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가장 첫 번째고, 항상 엄마 아빠 보고 해맑게 웃는 그 얼굴 매일매일 그 모습 그대로 컸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늘 웃게 해줄게. 엄마 아빠가 태양이 많이 많이 사랑해♡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 | 최휘용**(남아)  
**부모 |** 최승현(아빠), 안수민(엄마) / 퇴계동  
**태명 |** 도담이  
**태몽 |** 엄청 큰 물고기 꿈(친구들)  
**생년월일 |** 2015년 10월 1일



## 휘용이 탄생이야기

철없고 풋풋했던 고등학생 때 만나 8년을 연애하고 찾아온 우리 귀한 아기천사예요^^ 임신 기간 동안 조산기에, 자동차 사고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40주를 넘기고 2015년 10월 1일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저희 아들이랍니다^^

## 휘용이에게 바라는 것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마음이 따뜻한 아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어날 동생에게도 든든한 형이가 되어 줄거라는 믿음이 있네요^^ 사랑해~

**아기 | 김도아**(여아)  
**부모 |** 김병록(아빠), 김수경(엄마) /동면 장학리  
**태명 |** 나무  
**태몽 |** 뱀 꿈(친언니)  
**생년월일 |** 2015년 10월 16일



## 도아 탄생이야기

결혼 3년동안 여러 번의 실패로 지친 우리부부에게 하늘에서 큰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의 바람과 임무는 10달동안 아기를 지켜내는 것이었구요. 엄마 뱃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태명을 나무라고 지어줬어요. 36주 새벽에 태어나 모두를 긴장시켰지만 인큐베이터 도움 없이 건강하고 잘 자라 주었어요. 친정엄마의 생신날 하늘의 선물이라 그런지 더 뜻 깊고 감사하답니다^^

## 도아에게 바라는 것

엄마 뱃속에서 힘찬 심장소리 뽐내며 엄마 아빠 설레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널 키우면서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있겠지만 뱃속에 있었을 때 마음처럼 항상 같은 마음으로 널 지켜줄게. 사랑해 나무야 ♡



##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기 | 김서울(남아)

부모 | 김성기(아빠), 김혜정(엄마) /후평동

태명 | 튼튼이

태몽 | 엄청 큰 복숭아를 집으로 가져온 꿈(엄마)

생년월일 | 2016년 5월 23일



### 서울이 탄생이야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 왔지만 엄마 아빠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널 맞을 준비를 했단다. 우리 서울이는 엄마랑 아빠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고 그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 서울이에게 바라는 것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받으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항상 서울이 곁에서 지켜줄게.~ 사랑해

아기 | 박서준(남아)

부모 | 박찬일(아빠), 김인희(엄마) /사노동

태명 | 복덩이

태몽 | 큰 구렁이 꿈(시아머니)

생년월일 | 2015년 6월 23일



### 서준이 탄생이야기

서준이 엄마인 저는 겁이 너무 많아요! ㅎㅎ~ 아기 낳는 게 너무 무서워 결국 제왕절개로 서준이를 낳았어요. 무엇보다 쉬운 게 없었던 출산과정. 자연 분만한 엄마들도 대단하지만 수술로 배를 가르고, 남들보다 몇 배 길었던 회복 과정까지...! 엄마들은 모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 서준이에게 바라는 것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너무 잘 웃어요. 살인미소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알려주었죠.^^ 하얀 피부, 큰 눈, 거기에 눈웃음까지 ♡ 앞으로 작은 일에도 밝게 웃는 그런 아이가 되었음 좋겠어요.~ 서준이에게 늘 웃을 일 가득하게 도와줄 거예요.~ 사랑해 서준아 ♡



##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주열)는 3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윤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요약)



황환주 의원

#### 환경공원 소각시설 여열공급시설 설치에 대하여

본 사업은 환경공원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자체 사용하고 그 중에서 남은 열을 집단 주거지역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난방용 에너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대체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사업이며, 연간 14억 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되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춘천에너지는 환경공원 소각장 부지 내 열 공급관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선 투자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시에서는 그에 따른 설치비용 15억 원을 5년 동안 열 판매 수익금으로 상계처리한 후 열 공급관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되어 있으며, (주)춘천에너지에 소각 여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열 교환기 등 기계설비 및 건축, 토목 비용 35억 원은 (주)동부건설에서 선 투자하고 시에서는 2021년 6월까지 열 판매 금액에서 우선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다. 총 공사비 50억 원 중 (주)동부건설에서 설치하는 비용 35억 원에 대하여는 소각로 내부시설에 포함되는 불가피한 시설로 볼 수 있어 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주)춘천에너지와 체결한 열 공급관 설치비 15억원의 시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추후 기부채납 받은 시 소유의 열 공급관을 무단 사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춘천시에서는 열 공급관 설치비 15억 원은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남상규 의원

#### 동서고속철도의 춘천경유노선 지하화해야

최근 3월 6일 자 언론에 기재된 기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1안으로 춘천역에서 우두별 중심을 관통하여 배후령 쪽으로 지나는 노선과 2안으로 춘천역에서 수변을 따라 독립화목원 쪽으로 선화하는 두 가지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춘천시는 춘천 구간의 두 가지 노선 중 1안에 대해 지하화를 강원도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런 결단에 대해 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린다. 춘천에 처음 복선전철이 들어오던 때 시민들의 강력한 의견인 노선 지하화 요구는 무시되고 경제성을 이유로 지상화로 결정된 후 도심을 고공으로 가르는 철로 교각은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고속철도 춘천 구간에 대해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경제성을 이유로 지상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건설된 대구나 강릉의 경우 도심 통과 지역은 지하화로 확정되었는데 춘천의 경우는 지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선의 지하화를 요청한다. 또한 도시 발전의 과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던 강북 지역의 주민들은 일반전철 노선의 연장을 통해 북춘천역의 신설을 강력히 주문한다.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일반전철의 연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의정 활동



1	2
3	4
5	6

1.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변관우)는 2월 20일 부평구의회 의원들과 도심 내 생태하천 복원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3.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규)는 3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인건을 협의했다.
5.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변관우)는 3월 14일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인건을 협의했다.

2. 춘천시의회 의원은 3월 1일 제98주년 삼일절을 맞아 애국지사 동상을 참배했다.
4.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변관우)는 3월 14일 시의회에서 춘천막국수협의회(회장 고만성)와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6.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한중일)는 3월 14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인건을 협의했다.

\* 5분 자유발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www.cccouncil.go.kr](http://www.cccouncil.go.kr))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며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http://www.igbs.kr>)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 사례로 알아보아요!



**Q**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제재대상인가요?

**A** 공직자 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 〇〇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도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김태완

**Q** 건축심의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건축사 · 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 · 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 ·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640〉



## 관광도시 춘천을 위한 관광통계 구축

김영식 (GU건설팅 대표)

관광산업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소비활동을 유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성공적인 관광산업 도입이 직접적인 공해 없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주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 않다.

최근 춘천시는 레고랜드, 삼악산 로프웨이, 삼천동 호텔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발전상황을 보여주는 근거로써 관광객 수를 활용하고 있다. 춘천시는 2016년 관광객 수를 1,20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집계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업 제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1,200만 명의 관광객 수가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객 수 추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과 해결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춘천시에서 발표하는 관광객 수는 1975년대부터 이어지는 방식으로 '기초 자치단체 → 광역 자치단체 → 문화체육관광부'로의 보고를 통해 작성되고 있다. 통상 관광객이 춘천시를 방문하면 복수의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그러한 중복성을 해결할 수 없다. 예시로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춘천을 방문하여 강촌, 구곡폭포, 소양강댐 등 3곳을 방문할 경우 실제 춘천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4인이지만 보고체계를 거치게 되면 12인으로 통계가 생산되어 8인에 대한 허수가 춘천시 관광객 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역 관광총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매년 '국민여행실태조사'로 발표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수준까지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2015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이동총량)는 3,906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춘천시 발표 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면 춘천시에서 발표하는 관광객 수(1,000만 이상)는 많은 허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 수와 관광소비총량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소비총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관광객 수의 경우, 지역에서 발생하는 휴대폰 사용자 데이터 중 지역민의 휴대폰 데이터를 제거하게 되면 외지인의 휴대폰 데이터만 남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객 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외지인이 어디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춘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관광통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게 된다면 춘천시 관광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학적인 관광통계 구축을 통한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춘천을 기대해본다.

‘봄내신문고’ 코너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고량은 1,200자 이내이며 게재된 글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메일 chung988@korea.kr / 문의 봄내편집실(☎250-4169)



# 봄내골 소식

## 장학금·성금 물품 후원



●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지부장 길천수는) 3월 9일 춘천시청 제휴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장려금 3,870여만원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농업회사법인 춘천양돈(회장 차중원)은 2월 17일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 신복읍 샘밭농장(대표 박노충)은 3월 3일 봄내장학기금으로 30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춘천시에 기탁했다.



● 후평3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양 아이텍(대표 고광만)이 200만원을 후평3동 주민센터에 기탁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 일동은 50만원을 후원하였다.

● MG북춘천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선호)는 2월 2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30포, 10kg 10포(총 154만원 상당)와 줌도리 성금 130만원을 신사우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강원도회 춘천시협의회는 3월 9일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사북면에 소재한 영산불교 유지재단 현지 새주지 정대스님은 3월 8일 홀몸 취약가구를 위해 과일(수박 외 4종 520kg, 총 160만원 상당)을 사북면사무소에 전달했다.



● 춘천시새마을후원회(회장 유원표)는 3월 7(화) 관내 식당에서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재현)의 추천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족 학생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춘천모임(회장 신지용)은 3월 10일 봄내장학재단에 장

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 MG춘천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인총원)는 2월 17일 사랑의 줌도리 운동으로 모은 성금으로 라면 75박스를 구입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후평2동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 성광안경원(대표 박제원)은 3월 8일 관내 저소득층을 후원하기 위하여 쌀 10kg 10포(총 22만원 상당)를 조운동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 후평3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상순)와 은하수봉사단(단장 노진숙)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400여개의 빵을 2월 25일 홀몸 어르신 100여 가구에 전달하였다.

● MG춘천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인총원)는 2월 27일 후평3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및 경로당 어르신께 후원할 라면 50박스와 쌀 20kg 5포, 화장지(30롤) 10개를 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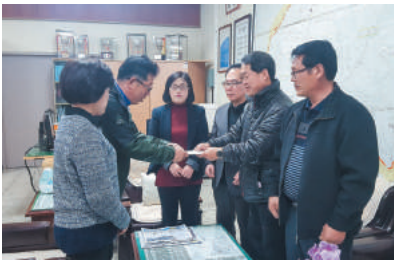
● MG북춘천새마을금고 후평점(지점장 전영찬)은 2월 28일 관내 수급자 등 12가구에 후원할 쌀 20kg 12포와 후원금 30만원을 후평3동 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 MG춘천동부새마을금고는 2월 22일 효자 2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줌도리운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액으로 라면 51박스와 화장지 20세트를 구입, 기증하였다.



● 동산면 사랑나눔후원회(회장 정중식은) 작년 연말 화재로 집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임시 거주중인 저소득가정에 3월 2일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e편한세상 춘천 한솔시티는 3월 17일 모델 하우스에서 춘천시 노인복지시설 12곳에 쌀 400포를 기증하는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열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강원지사(지사장 박창모)는 3월 13일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을 후원하는 문화상품권(총 100만원)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춘천호반로타리클럽(회장 엄희열)은 2월 21일 서면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에서 연탄 500장과 보일러배관 교체, LED전등 5세트 교체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안보리경로당을 찾아 라면 10박스와 쌀 4kg 10포를

전달했다.



● MG춘천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안충원)는 2월 1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75박스(총 100만원 상당)를 효자3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춘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이영신)은 대한석유협회와 함께 3월 2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어려운 5명의 어르신께 각 40만원의 난방유를 지원하였다.



● 서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임옥현)는 3월 3일 저소득층 23가구에 쌀 10kg 2포씩(총 100만원 상당)을 전해달라며 서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허용호) 사회봉사단은 3월 2일 효사랑요양원 및 위스타트 춘천마을을 방문하여 쌀 및 생필품을 후원하였다.



## 봉사·환경정화



● 서면의 위로의 집(원장 유상교)과 82정비대 대장병 등 12명은 2월 28일 신동면의 비닐 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불우노인을 찾아 비닐 하우스 철거 및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내부 장관·도배, 전기선 설치, 후원물품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컨테이너 지원(안디옥교회 50만원, 나눔선교회 20만원) 군부대 지원(쌀, 소형냉장고, 밥상, 이불, 공구세트)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주선)는 2월 21일, 춘천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민요와 무용 공연봉사를 진행했다. 참여봉사단은 소리아카데미(단장 안필순), 누리봄단장 호나기)으로 지난 2016년부터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70-8766-8699



● 서면사회복지봉사단 단원 20명은 2월 27일 서면 오월2리 홀몸노인 저소득가구의 집으로 정비 및 평탄화 작업봉사를 실시했다.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주선) 소속 드림봉사단(단장 안중호)은 3월 10일, 춘천호스피스에서 청소 및 소독봉사를 약 3시간정도 진행했다. 2013년부터 봉사를 진행한 드림봉사단은 2017년 홀몸노인 방한벽지 시공봉사를 시작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다양한 봉

사를 펼치고 있다. \*문의 (070-8766-8699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사물놀이동아리 어르신들은 2월 17일 강원도재활병원을 찾아 위문공연을 펼쳤다.



● 동면 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근순)은 3월 16일 동면 만천리 소재 사우나에서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몸어르신들께 목욕봉사를 했다.



● 퇴계동 통장협의회(회장 정은선)는 3월 16일 공지천 일원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벌였다.



● 퇴계동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장 안세헌)는 3월 8일 공지천 일원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벌였다.



● 후평3동에 사는 홍중오(74) 씨는 매일 2시

간씩 애막골 등산로 5km내외에서 등산로 보수, 쓰레기 줍기, 눈치우기 등 선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석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왕선자)는 2월 23일 여성전용 사회복지시설인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환경을 정비했다.



## 식사대접·잔치



● 동내면에 소재한 중화요리점 진미루(대표 양동필)는 3월 13일 동내면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의 봉사자와 함께 어르신 400여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하였다.



● 후평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중섭)는 2월 22일 관내 홀몸 어르신 중 1월~3월 생신을 맞으신 20분을 모시고 음식을 제공하였다.



● 후평3동에서는 특색있는 먹거리 지원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후원자의 도움을 받은 적립금을 가맹점에 비치한 후, 돈이 없는 아동이나 홀몸어르신들께 음식을 제공하고 적립금에서 지불을 하는 방식이다. 현재 먹보만두 김밥분식과 빠르게랑 피자 후평점에서 시행중이다. 한울림교회(목사 김범찬) 등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다.

● 사농동 남원본가추어탕(대표 이인행)은 2

월 25일 사우동 어르신들 50여명을 초청해 무료 식사를 대접했다. 남원본가추어탕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오고 있다.



● 신사우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순)는 2월 28일 신사우동 자율방범대를 방문, 방범대원 3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했다. 이날 위문은 식음회사 콩다원(대표 김미라)에서 두부 등 음식을 후원했다.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22일 관내 90세 이상 홀몸노인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열었다.



## 행사·협약



● 춘천시 평생학습관 현판식이 3월 16일 퇴계동 현지에서 시민, 수강생, 최동용 춘천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협약식이 2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춘천시, 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균),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정부),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옥자), 춘천시복지이동장협의회(회장 박제철), 춘천시복지위원회(회장 임기수), 춘천시사회복지봉사단(회장 과진수) 등 7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춘천시민들이 힘을 모았다. 바르게살기운동춘천시협의회를 비롯, 춘천시이동장연합회, 각종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1,700여명은 대규모 서포터즈단을 꾸려 2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창, 강릉 등 테스트이벤트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오는 4월에도 강릉 하키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할 예정이다.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영숙)는 3월 16일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재현)와 지역 내 결혼이민여성에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 인력의 발굴 및 양성, 직업교육 운영, 취업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후평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중화)와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임)는 2월 24일 자치위원, 자생단체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였다.



● 춘천시와 코오롱글로벌(주)대표 윤창운은 3월 7일 시청에서 도시재생사업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 사진은 장동권 부시장)



●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변영혜)은 2월 27일 복지관 강당에서 살기좋은 우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중물'을 위하여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등 약 13개소의 유관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석사동주민센터, 동산면, 동내면사무소와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지구대장 박대덕)는 3월 14일 석사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어려운 이웃에 더욱 관심을 쏟기로 하였다.



●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홍춘자)와 두루바른언어심리임상센터(이사장 정주형)는 2월 23일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MG춘천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신영길)

의 2층 회의실 무상 지원으로 개설된 신사우동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이 3월 8일 개강식을 가졌다.



● 석사동 통장협의회(회장 유두재)는 3월 3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춘천교대에서 봄철 산불조심 홍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회장 이수홍)가 마련한 노인대학 입학식이 3월 17일 시민복지회관에서 열렸다.



● 삼한골 '춘천숲체원' 산림레포츠 활성화 심포지엄이 3월 20일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최동용 춘천시장,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및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알림 마당

## 강습·교육·교실

### 국립춘천박물관 4월 프로그램

구분	제목	일시	내용
전시	상설전시실 개편(2.6~10.30)에 따른 전시실 휴실(10월 31일 재개관 예정) *휴실 기간 중 야외공연장, 어린이문화사랑방 등 모든 프로그램 정상운영		
	학수고대, 새로운 전시를 기다림	3.28~10.1	개관 15년만의 상설전시 전면개편을 앞두고 선보이는 특별기획전시
문화행사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4.22(토) 19:00	사북면지역아동센터 꿈마을 플러팅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국립춘천박물관 강당)
	문화가 있는 날	4.26(수) 11:00	춘천MBC 임신옥아교실
	문화가 있는 날	4.26(수) 16:00	큐레이터와의 대화 '사자 위에 올라탄 강원의 문수보살 이야기'
	문화가 있는 날	4.26(수) 19:00	퓨전국악뮤지컬 "춘천의병아리랑 특별창작공연"
	박물관 영화관	매주 토, 일, 공휴일 15:00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박물관 주말영화(무료) 관람
교육	새싹들의 박물관 나들이	매주 화~금 09:30~12:00	학교연계 초등학생 단체 대상 - 액자 만들기 등 선택 체험 4종
	사랑박물관 희망박물관	매주 화~금 09:30~12:00	문화희망계층 시설 단체 대상 - 전통문화 속 '종이와 다복'
	지구촌 박물관 가족	매주 화~금 09:30~12:00	외국인 단체 및 다문화가족 대상 - 세계 문화속의 '답'
	박물관 병영문화학교	매주 화~금 14:00~17:00	포화를 견뎌낸 우리 문화재 - 도장 만들기 등 선택체험 2종
	제10기 어린이 박물관학교	1,3,5주 토요일 09:30~12:00	초등학교 5~6년 50명 - 입학식(4.1), 선사인의 생활과 도구(4.15), 특별전시 '학수고대전' 체험(4.29)
	역사를 품은 토요일박물관	2,4주 토요일 10:00~12:00	어린이 및 동반가족 50명 대상
	어린이 문화 사랑방	매주 화~일 10:00~17:00	4세 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대상 무료 상시 운영 - 박물관 속 감성 놀이터

▶ 상세 일정은 국립춘천박물관 누리집 참조 <http://chuncheon.museum.go.kr/html/kr/>

### '문화파출소 춘천' 강좌 개설

- 기간 : 4월~12월 연중 수시
- 장소 : 문화파출소 춘천(동면치안센터, 동면 감정리 394)
- 프로그램 : 프라모델 만들기, 쓱다쓱다 손바느질, 스토리텔링 위인 놀이 등 30여개 프로그램.
- 신청 : 블로그(blog.naver.com/13tongtong)
- 수강료 : 프로그램별 3만5,000원 내외
- 문의 : ☎070-7858-7848(통통창의력발전소)

### 우리동네예술 무료 공방·목공교실

- 내용 : 목공기초실습, 공동작업(행사), 개인작업(다용도 원목반침대) 외
- 신청 : 블로그(blog.naver.com/13tongtong)
- 모집기간 : 4.9까지
- 모집대상 : 목공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선착순 10명
- 운영기간 : 4.11~7.4(매주 화 14~17시) \*7.8(토) 전시회
- 장소 : 문화파출소 춘천(동면치안센터, 동면 감정리 394)
- 문의 : ☎070-7858-7848(통통창의력발전소)

### (사)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

#### 전통민요·장구 교육프로그램

- 민요야간반 : 기초창법·장구타법/월, 19~21시/수강료 월 5만원
- 예술공연반 : 소리·공연연습/화,목 10~12시/수강료 월 6만원
- 어린이반 : 민요발성·장구타법/화,목 16:30~18시/수강료 월 10만원
- 문의 : (사)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 010-5366-0050

### '택견' 춘천시민 무료강습

- 모집기한 : 4.3까지(50명 모집)
- 모집대상 : 택견을 배우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어르신 환영)
- 강습기간 : 4.4~2018.3.30
- 강습일시 : 매주 화,금(10:30~11:30, 19:30~20:30)
- 강습장소 : 강원택견문화원(남춘천초등학교 사거리)
- 강습내용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이며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택견 강습
- 문의 : 강원택견문화원(☎242-9191/010-7180-8592)

### 패션의류제작 및 반려동물 관리 무료교육

- 패션의류제작 전문과정 : 모집기간(4.3~5.8)/교육일시(5.22~9.12, 주5일09:30~13:20)/인원 20명/자격(등본상 춘천시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취업취약계층 등)/방문 접수/주요취업처:(주)준영, (주)명신, (주)경남 등/제출서류(구직등록 확인증, 반명함사진 2장, 자기소개서)
- 반려동물관리사 전문과정 : 모집기간(5.1~5.24)/교육일시(6.5~10.31, 주5일09:30~13:20)/인원 20명/자격(등본상 춘천시민, 미진학 청소년, 청년실업자, 미취업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방문 접수/주요취업처:강촌 애견테마파크 및 동물과사람, 반려동물 관련업체/제출서류(구직등록확인증, 반명함사진 2장, 자기소개서)
- 교육특혜 : 교육비 전액무료, 실습비 전액무료, 수료생 취업 알선
- 문의 : 한국노총 춘천영서지역지부(☎243-7576/253-7576)

### 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 무료교육

- 교육대상 : 도내 중소기업인, 예비 창업자, 청년, 일반시민 등
- 교육기간 : 4월중

- 교육과목 : ▷온라인창업아카데미 ▷CS교육 ▷modoo기초·심화 ▷ebay(g마켓, 옥션)교육 ▷스토어팜 심화 ▷동영상제작마케팅
- 상세문의 : ☎244-5892~3(동면 장학리 1007-7, 청일빌딩 3층)

### 춘천시산악연맹 2017 등산교실

- 기간 : 4.17~5.21(10회) 19시~21시
- 장소 : 봄내체육관 등 □ 대상 : 시민 30명
- 참가비 : 7만원(등산교재, 삼각건 제공)
- 준비물 : 노트, 볼펜, 연필, 30CM자, 지우개, 산행에 적합한복장(실습)
- 운영 계획 : 이론과 실습 교육 10회/4.17(알피니즘과 등산역사), 4.19(등산계획, 등산식량과 취사), 4.21(응급처치 구급법), 4.24,30(독도법), 5.10(등산예절과 환경보전), 5.12(보행법, 스틱사용법, 비상사태 안전대책 등), 5.15,17(스포츠클라이밍), 5.21(자연암장 체험등반)
- 신청방법 : 춘천시산악연맹 홈페이지(www.kafcc.kr), 전화(☎263-2750) \*일정은 교육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신청

### 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 과정 : 세무회계사무원(교육기간 3.30~6.29), 생애주기별 급식조리사(교육기간 4.10~6.29), 카페마스터(교육기간 4.18~7.31), 프로패셔널 행정사무원(교육기간 5.8~7.18), 국가자격 메이크업전문가(교육기간 5.22~9.8), 소프트웨어(코딩)전문강사(교육기간 9.1~1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훈련신청서, 구직등록신청서, 반명함 사진1매)
- 문의 : 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243-6474)

### 2017년 춘천시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 지원사업 훈련생 모집

- 과정명 : 자연염색 물들이기 & 생활용품 디자인 제작
- 대상 : 취업·창업에 희망하고 자연염색 분야로 관심이 있는 시민
- 일정 : 4.6~7.27(매주 목 10~13시)
- 수강료 : 수강료지원, 자부담3만원
- 접수기한 : 3.31까지 방문접수
- 문의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243-6474)

###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수출업체 무역인력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 : 춘천관내 수출업체 취업·창업 희망자(15명)
- 교육일정 : 4.17~7.11(13~17시)
- 교육장소 :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회 교육장
- 교육내용 : 무역에 관한 이론·실무 지식 습득과 현장실습
- 문의 :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회(☎251-9080, 9081)

### '2017 은퇴금융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대상 : 노후를 현명하게 대비하고 싶으신 분
- 일시 : 4.5~5.10(매주 수/14~17시)
- 장소 : 한국은행강원본부 3층 강당
- 내용 : 은퇴관련 금융지식 및 생활정보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259-3618)

###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모집

-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채용 예정인 기업

- 내용 : 청년근로자가 2년 근무하며 300만원(12만5천원×24개월)을 저축하면 만기(2년) 시 근로자에게 1,200만원 지급(\*기업부담금 없음)
- 기업혜택 : 채용유지지원금 200만원(2년간)지급, 중소기업청 41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 문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256-8828)

###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입단원 모집

- 모집부문 : 현악기, 목관악기(플루트 제외), 금관악기, 타악기 파트로 자유곡 1곡과 스케일 연주로 진행
- 모집기간 : 3.27~4.6
- 응시자격 : 2017년 1월 기준 만 12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연습 참여가 가능한 춘천시 및 인근 지역 거주학생
- 응시방법 : 예술단 사무실에서 원서 직접 수령 또는 춘천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춘천시립예술단(☎259-5877), www.cccf.or.kr

### '봄내텃밭' 참가자 모집

- 대상 : 텃밭농사를 하려는 춘천시민
- 사용 : 2017년 4월~11월
- 장소 : 옛 캠프페이지 봄내체육관 옆
- 사용료 : 텃밭 16.5㎡(5평) 5만원
- 문의 : 씨앗과농부협동조합(☎241-2700)

### 한국무용(강습)단원 모집

- 대상 : 성인, 어린이(수시모집)
- 강습시간 : 성인반(월,금 20~21시), 어린이반(월,수,금 17~18시), 입시반(월,수,금 18:10~19:40)
- 개인강습 및 수강료 : 별도문의
- 문의 : (사)라온예술(☎253-7094, 010-2682-7094)

### 장애인 정보화 무료교육생 모집

- 모집과정 : 컴퓨터, 인터넷, 한글, 스마트폰 활용 등
- 모집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 직계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문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춘천시지회(☎244-0579)

### 카케어(세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3.20~4.30
- 모집대상 : 17~55세 청장년(취약계층 우선선발)
- 교육일정 : 1차(5.15~6.13), 2차(8.21~9.15)
- 모집인원 : 총 12명
- 접수방법 : www.coopcity.or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csen@naver.com) 발송
- 문의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252-2542)

###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 대상 : 노래를 좋아하는 분 □ 접수 : 4.5(수)까지
- 교육기간 : 4.6~11.30(매주 목/10시~12시)
- 개강 : 4.6(목/오전 10시) □ 장소 : 봄내극장
- 강사 : 춘천연예예술인협회장 김정일 외
- 수강료 : 1만5천원(매월)
- 문의 : 춘천예총(☎243-4360)

### 춘천예술마당 서포터즈 모집

- 대상 :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20~50대)
- 접수 : 4.5(수)까지
- 교육 및 활동기간 : 4월~11월(매달 1회)
- 장소 : 춘천예총 회의실
- 내용 : 무료교육 후 춘천예술마당 서포터즈로 활동
- 기타 : 서포터즈 활동 시 중식비·교통비 지급, 매거진 '춘천예술' 편집기자활동
- 문의 : 춘천예총(☎243-4360)

### 고령자인재은행 구인구직 알선

- 내용 : 고령자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적응훈련 및 직장소양교육, 인턴연계
- 대상 : 만50세 이상 구직자 및 채용업체
- 문의 : 춘천YWCA(☎254-4878)

### '꽃과 낭구애기' 무료 참가자 모집

- 대상 : 나무공예에 관심이 있는 분(60세 이상)
- 기간 : 4월~6월(주2회/10~12시)
- 장소 : 나누리요양보호협동조합 교육실
- 교육내용 : 나뭇가지를 이용한 공예품 제작
- 문의 : 나누리요양보호협동조합(☎262-5542)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설립 교육생모집

- 신청기한 : 4.17(월)까지
- 교육일시 : 4.19(수/14~16시)
- 교육장소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춘주로 92, 3층)
- 문의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52-2542)

### '시설관리원 교육' 국비지원 고령자인재은행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대상 : 만50세 이상(취업하실 분)
- 일시 : 5.15~5.31(평일 오후1시~5시)
- 장소 : 춘천YWCA 2층 강의실(도청 부근)
- 교육내용 : 건물종합관리(건물 및 아파트경비) 및 실무교육
- 문의 : 춘천YWCA(☎254-4878)

### '일상(일터) 신앙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대상 : 시민 누구나
- 일시 : 3.30~6.29(매주 목/19시~20:30)
- 장소 : 춘천YWCA 2층 강의실 (도청 부근)
- 교육내용 : 일상의 고민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용기와 지혜를 채득
- 문의 : 춘천YWCA(☎254-4878)

### '진로, 일터 소명에서 찾자' 교육생 모집

- 대상 : 시민 누구나
- 일시 : 4.8(토/14~16시)
- 장소 : 춘천YWCA 2층 강의실 (도청 부근)
- 문의 : 춘천YWCA(☎254-4878)

### '춘천YWCA 합창단' 재창단 단원모집

- 대상 : 노래를 사랑하는 여성
- 일시 : 매주 월/오후 7시

- 장소 : 춘천YWCA 4층 강당
- 문의 : ☎254-4878, 010-8796-7033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춘천지회 신입회원 모집

- 대상 : 어린이책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일시 : 4.4~4.18(매주 화/10시)
- 장소 : 춘천시립도서관 2층 회의실
- 교육내용 : 4.4(늘이는 교육의 스승이다-편혜문 작가, 아동문학가), 4.11(어린이문학으로 마음을 나뉘요-장인경 강원지부장사), 4.18(어린이도서연구회와 나-이미숙 강원지부장)
- 문의 : ☎010-9372-1761, 010-6396-7768

### 아름다운가게 춘천점 활동천사 모집

- 활동업무 : 재사용 매장관리 및 기증접수
- 활동시간 : 주 1일(월~토/10~14시, 14~18시 중 택일)/3개월 이상 활동
- 활동혜택 : 봉사시간인정 및 오전근무 중식 제공
- 문의 : ☎253-0050(팔호광장 KEB하나은행 옆)

### '춘천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원 모집

- 대상 : 음악에 관심있는 여성분(20~60세)
- 연습시간 : 주1회(월요일, 19:30~21:30)
- 공연활동 : 춘계추계 정기공연, 수시 찬조출연, 재능기부활동
- 문의 : 010-5372-9547(단장), 010-9982-2377(단무장), 010-9982-2377(총무)

###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명 : 어린이철학놀이마당 만/물/통
- 기간 : 4.1~12.3(매주 토 10시~13시)
- 장소 : 강원공연예술연습공간(춘천시청 임시청사 내)
- 주요내용 : 철학이 있는 토론마당(철토마)과 철학이 있는 연극마당(철연마), 두 마당으로 구성하고 각 마당을 격주로 19회 차 운영. \*12.3 봄내극장 결과발표회.
- 현장학습 : 권진규미술관, 서울 대학로 어린이연극관람 등
- 참가대상 : 초등 3~6학년 아동과 가족, 각 마당별 정원 8~12명
- 문의 : cafe.naver.com/kspes, 010-6238-6038(허경희 주강사)

### 춘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3.20~5.10 □ 모집대상 : 17세~34세 청년
- 모집인원 : 14명 □ 교육일정 : 5.15~6.23
- 접수방법 : www.coopcitiy.or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csen@naver.com) 발송
- 문의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252-2542)

### 2017년도 춘천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나의 삶, 우리내(川) 이야기' 무료수강생 모집

- 모집인원 : 10명(전화 및 방문, 선착순)
- 모집기한 : 4월까지
- 개강 및 교육일정 : 5.2(14시 개강), 5월~6월 교육(화/14~17시)
- 수강장소 : 춘천문화원 2층 의암실
- 준비물품 :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
- 내용 :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나 취미활동 등 자유주제로 영상자서전 제작
- 접수 및 문의 : 춘천문화원(☎254-5105)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모집

- 접수기간 : 2017. 6. 30까지
- 모집인원 : 1만 5,000명 □ 대상 : 강원도민 누구나
- 활동 : 2017년 테스트이벤트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경기 참여 및 열띤 응원
- 참여방법 : 홈페이지(gw2018supporters.kr) 및 읍면동주민센터

## 행사

### 대한13도의군 의암 류인석 도총재 기념사업 충의(忠義)현장 무료탐방투어

- 대상 : 시민 선착순 120명(3개 기수)
- 접수기한 : 5.19까지
- 탐방일시 : 5.26/6.9/9.8(09시~17시)
- 코스 : 봉의산순의비,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충렬탑, 충장공헌백록묘역, 장절공신승경묘역, 윤희순의사생가, 의암류인석유적지, 흥천 한서남궁역기념관 □ 기타사항 : 간식 및 티셔츠 제공
- 문의 : 춘천문화원(☎254-5105)

### 2017 봄내가요제 예선

- 대상 : 춘천거주 남녀(만 20세 이상)
- 일시/장소 : 4.26(오후 1시)/봄내극장
- 접수/장소 : 4.25. 17시 까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춘천지회(석사동)
- 상금 : 대상(50만원), 금상(40만원), 은상(30만원), 동상(20만원)
- 문의 :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춘천지회(☎261-5853), 010-7700-5857

### 춘천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

- 사업계획접수 : 3.22~4.19
- 창업경진대회 : 4.25(화) 14시
- 장소 :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꿈마루
- 특전 : 2팀에게 500만원씩 창업지원금 지급(자부담 30%)
- 접수방법 : www.coopcitoy.org에서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csen@naver.com)로 발송
- 문의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252-2542)

### 2017년도 춘천시민축구단 K3리그 홈경기 일정표

〈송암스포츠타운〉

순번	R-번호	경기일시	상대팀
1	4R	4.15(토) 오후 3시	청주FC
2	6R	5.13(토) 오후 3시	김포시민축구단
3	9R	6.10(토) 오후 3시	청주CITY FC
4	10R	6.17(토) 오후 3시	파주시민축구단
5	12R	7. 1(토) 오후 4시	양평FC
6	13R	7. 8(토) 오후 4시	화성FC
7	14R	7.15(토) 오후 4시	포천시민축구단
8	16R	8.19(토) 오후 4시	경주시민축구단
9	18R	9. 2(토) 오후 3시	양주시민축구단
10	19R	9. 9(토) 오후 3시	전주시민축구단
11	22R	10.14(토) 오후 2시	이천시민축구단

※ 경기별 경품 추첨 진행 □ 문의 : 춘천시 체육과(☎250-3251)

## 제4회 점말촌 매화축제

- 일시 : 4월 7일 오후 5시부터 매화꽃이 질 때 까지
- 장소 : 도예마을 점말촌(서면에 소재한 점말촌 및 일대 매화밭)
- 오프닝 : 4.7(금) 오후 5시
- 행사개요 : 지난 2005년부터 매화축제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꽃 축제로 큰 호응을 얻은바 있음.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제4회 매화축제를 개최함. 춘천이 봄의 도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매화축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내 고장의 품격을 드높이고자 함.
- 오프닝 공연(재능기부) : ▶춘천박사마을합창단 공연 ▶색소폰 공연(오울리 이장) 및 민성숙의 공연 ▶폼바공연(장이레 예술감독) ▶성악가 드림라이프
- 먹거리 장터 : 서면부녀회 주관 메밀부침, 잔치국수, 매실막걸리, 매실 원료 친환경 먹거리(매실 장아찌, 매실 김치, 매실 엑기스 등) 저가 구입 가능 □ 전시회 : 점말촌 토기장이들이 빚은 여러 도자기
- 문의 : 축제조직위사무실(☎243-9059) 조직위원장 박영진(010-3744-9059)

## 건강·복지·상담

### 춘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

- 기간 : 연중(월~금 09시~18시)
- \*사전예약제 야간클리닉 : 매주 목요일 18~20시
- 대상 : 시민 중 금연을 원하는 모든 분
- 내용 : 12주간 프로그램 운영 및 6개월 간 추후관리,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 담배가 유발하는 치명적 질병 8가지 : 방광암, 뇌졸중, 버거씨병, 후두암, 폐암, 구강질환, 자궁경부암, 백내장
- 문의 : 춘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250-4691~2)

### ‘마음공감 행복나누기’ 지역주민 정신건강교육

- 일시 : 4.26(수)/13:20~14:20
- 주제 : 마음공감(정신질환의 이해-기본장애)
- 강사 : 김광훈(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장소 : 춘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2층 강당
- 내용 : 기분장애에 대한 소개 및 원인, 기분장애의 치료 및 대처방법
- 문의 : 춘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행복누리팀(☎244-7574)

### 2주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받으세요

- 대상 : 2주이상 기침 · 가래 증상
- 검사 :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
- 장소 : 춘천시보건소 1층 만성병관리실
- 문의 : 춘천시보건소 만성병관리실(☎250-4605~7)

###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참여자 추가모집

- 추가모집기간 : 3월말까지 □ 추가모집인원 : 10명
- 신청자격 : ▷난임진단서 제출자 ▷3개월이상 지속적인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 ▷저소득층 대상 및 춘천시거주 6개월 이상 우선 ▷만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비용 : 무료
- 상세문의 : 춘천시보건소 임신출산지원팀(☎250-3993)

### ‘치매 알아가기’ 무료 강좌

- 대상 : 치매에 대해 궁금하신 분 누구나
- 일시 : 4.18(화) 10:30~12:00
-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실
- 교육내용 : 치매 개념, 치매환자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서비스
- 문의 :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자원연계팀(☎257-9165)

### ‘키썩썩 몸튼튼’ 건강교실

- 일정 : 4.11~10.31(화,목) 11시~11:40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아동(42개소 1,800명)
- 장소 : 춘천시보건소 영양교육실
- 내용 : 영양교육 및 흡연·음주예방교육, 건강증진센터 견학
- 문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250-4665)

### 강원대학교병원 당뇨병 교육

- 기간 : 매주 수요일 11시~12시
- 대상 : 당뇨병에 관심 있는 환자 및 보호자
- 강사 : 내분비내과 교수 및 당뇨병 교육팀
-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실
- 문의 : 당뇨병교육실(☎258-2206)

### 암 환자를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 대상 : 도내 거주 암 환자와 보호자(선착순)
- 일시 : 매주 화(14~15시)
-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암센터 6층 교육실
- 프로그램 : 원예요법(4.4), 비누공예(4.11), 노래교실(4.18), 운동요법(4.25)
- 문의 : 강원지역암센터(☎258-9035~7)

### 지역주민을 위한 암 건강강좌

- 주제 : 암은 어떻게 진단되는가?
- 강사 : 강원대학교병원 병리과 이승구 교수
- 일시 : 4.5(수) 10~11시
-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암센터 3층 암정보관
- 문의 : 강원지역암센터(☎258-9035~7)

### 2017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교육생 모집

- 모집대상 : 일반인 및 완화의료 자원봉사 희망자(선착순 40명)
- 모집기간 : 3.2~4.14
- 교육일시 : 4.25~4.27(10~17시)
- 교육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암센터 9층 강당
- 등록비 : 2만원(교재 및 식사 제공)
- 기타 : 75%이상 출석 시 수료증 제공
- 문의 : 강원지역암센터 완화의료팀(☎258-9060, 9063)

### 201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발급기간 : ▶주민센터(2.20~11.30) ▶온라인(3.1~11.30)
- 지원대상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만6세 이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만원, 세대합산 7매(42만원)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주민센터), 온라인(www.문화누리카드.kr)
- 문의 : 주민센터 및 강원문화재단 문화복지팀(☎240-1322)

###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

- 대상 : 누구나 □ 일시 : 4.12.(수) 14~15시
-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1층 소회의실
- 내용 : 뇌경색의 치료 □ 강사 : 신경과 전문의 김성현 교수
- 문의 :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258-2095)

###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 상담내용 :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상담 및 관련 전문기관 연계 긴급보호
- 상담시간 : 1년 356일 24시간
- 상담방법 :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홈페이지)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 3층
- 상담 : ☎033-1366, 홈페이지(http://www.1366.or.kr)
- 문의 : ☎252-4041

###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무료 방문상담

- 신청대상 : 본인, 가족, 사회복지업무종사자, 교사, 상담사 등
-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 실시
- 상담횟수 : 총 8회(방문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신청(www.iapc.or.kr)가능
- 상담문의 : 강원스마트쉼센터(☎249-3078)

## 행정·기관

### 제20회 강원환경대상 추천 안내

- 추천기간 : 3.13~4.14
- 시상부문 : 강원환경대상과 4개 부문상(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보호운동, 환경보전 생활실천,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 추천요건 : 강원도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기업체, 마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
- 시상시기 : 6.8(목)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 참조(도정소식-공고/고시)

### 후평3동 지역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 점검지역 : 후평3동 사업장 및 전기설비 시설
- 점검내용 : 누전차단기, 개폐기, 옥내배선 점검 등
- 점검기간 : 1차(4.4~4.28) 2차(5.22~5.31)
-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260-8500)
- ※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점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

-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 보증금 가격 인상 : 2017.1.1. 이후 생산 제품부터 소주 100원(←40원), 맥주 130원(←50원)으로 인상
- 주요내용 : ▷소비자가 빈병 반환 요청 시 소매업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함 ▷소매업자가 보증금 반환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
- 문의전화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www.kora.or.kr(☎1522-0082) 춘천시 청소행정과(☎250-3155)

## 춘천시 '구인·구직만남의 날' 참여업체 (3월)

□ 문의 :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250-3782, 4434) □ 장소 : 시청 체육관동 □ 일시 : 30(목) 오후2시

사업장명	모집직종	모집인원	성별·학력 및 경력	근무시간	급여	제출서류	복지후생	고용형태
뉴원하우징	창호공(제작, 시공)	3	남자(25~35세)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주6일 08:00~18:00	월180만원	이력서	중식제공	정규직
원중씨앤씨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환경미화원	2	여자 (60세 이하)	주5일 08:00~17:00	월160만원	이력서	통근버스, 중식제공	2개월 단기직
춘천그린식품	사무직	1	여자(청년층)	09:00~18:00	연1,630만원	이력서	중식제공	정규직 토요일 격주휴무
	생산직	1		09:00~17:00	연1,440만원			
에이스춘천 TM센터	텔레마케터	5	남자(55세미만) 여자(50세미만)	주5일 09:00~18:00	월200만원	이력서	퇴직금	정규직
(주)삼구에프에스	생산직	5	무관	09:00~18:00 18:00~03:00	월136만원	이력서	중식제공, 통근버스	정규직
지씨에스 플러스(주)	영양사	5	무관(면허 소지)	주6일 05:00~18:00	연2,500~2,900만원	이력서	기숙사, 3식제공	1년계약 후 정규직 전환검토
	조리장	5			연3,100~3,600만원			
	조리원	5			연2,700~2,900만원			
(주)대일광업	갱내채광보조/ 채광기사	6	남자	08:00~17:00 17:00~02:00	월230만/월300만 상여금300%	이력서	기숙사, 중식제공	정규직
(주)비씨씨	룸메이드(계절직)	5	여자(20~55세)	주6일 09:00~18:00	월136만원 (정규직전환시 150만원 이상)	이력서	통근버스, 중식제공, 유니폼	3개월 단기직 정규직 전환가능
(주)피피씨춘천	생산직	5	무관(20~50세)	08:30~17:30 17:30~02:30	월160~220만원	이력서	통근버스, 중식, 경조사휴가	계약직 (3월~11월)

###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

- 열람기간 : 4.13~5.2 □ 열람장소 : 시청 지적과, 읍면동주민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sup>2</sup>당 가격
- 의견제출기간 : 4.13~5.2
- 의견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문의 : 춘천시 지적과(☎250-3801, 3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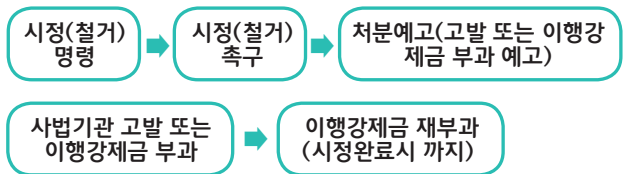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16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5월 2일(화)
- 납제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문의 : 춘천시 세정과(☎250-4548, 4547)

###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안내

-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단 1m<sup>2</sup>라도 건축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이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
-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등

### □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 주요위반사례 : ▷건축물 신축 후 테라스 무단증축 ▷옥탑을 무단 변경 하여 창고로 사용 ▷베란다, 발코니 등 확장(샷시 시공) ▷주택 수리를 가장한 대수선 및 증축 ▷컨테이너박스 설치 ▷천막, 철구 등 가설물 설치 ▷옥내주차장내 칸막이 설치 ▷지붕노후로 인한 지붕수선에 따른 높이 증가 ▷계단실, 문 위 차양, 비가림 시설 설치
- ※ 처벌대상 :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 문의 : 춘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250-3456)

### 배수설비 사용에 대한 안내

- 각 가정 또는 건물의 주방 및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오수(하수) 배출시 물에 녹지 않는 물질 즉 물티슈, 행주, 유지류 등을 그대로 버림으로 인하여 배수설비가 막히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됨.
- 따라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안내 드리오니 필히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개인별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배수설비 막힘으로 인한 설비시설 수리 시 본인비용으로 처리하게 됨으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로 민원접수 및 처리 : 춘천시하수관로BTL운영사업소(☎264-6637)



시정소식지 봄내는 독자 편지를 기다립니다.  
'봄내'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 춘천과 관련한 추억, 사진, 작품 등을 200자 원고지 1~2매(200~400자) 내외의 글로 써서 매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여기에 편지가 실리는 독자들과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주세요. 편집 사정에 따라 내용을 줄이거나 표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편: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교동)  
춘천시청 공보담당관실 내 봄내편집실  
이메일: ccc3@korea.kr

## ‘그때 그 사건’으로 본 국립춘천박물관

지난 호 봄내 ‘그때 그 사건’에서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관련 글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춘천박물관 2층 계단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볼 때의 느낌, 고대실의 토기의 넉넉함을 좋아합니다. 천장에서부터 빛이 모여져 벽돌에 닿아 시간이 잠시 멈춘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순수함을 믿되 혼탁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춘천박물관을 참 좋아합니다. 박물관을 건립해 주신 설립 초기 관계자 분들과 그리고 지금 관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순자(춘천시 후석로)

## ‘봄내’로 읽는 춘천의 과거와 현재

이리 저리 바쁜 워킹맘 중에 한 사람이라 욕심껏 읽어 내지는 못하지만 봄내 소식지가 나오면 일단 가방에 한 권 챙겨 넣고는 무언가 모를 든든함을 느낍니다. 집과 일터를 종종대며 다니다 보면 지역의 소식이나 각종 생활 정보를 더디 접할 때가 많은데 ‘봄내’를 통해서 정보의 갈증을 해소할 때가 많죠. 무엇보다 ‘그때 그 사건’이나 ‘봄내골 역사수첩’,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처럼 춘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그려볼 수 있는 코너가 있다는 점은 ‘봄내’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순희(춘천시 동면 후석로)

## 구이 집에서 유심히 보았으면 하는 지난달 기업기사

언제부터인가 매달 오는 봄내 소식지를 기다립니다. 이번 달은 어떤 기삿거리가 있을까? 그러던 중 지난 호에 실린 (주)타임이앤씨 기업 탐방 기사를 보고 춘천의 향토음식인 닭갈비 업소가 떠올랐습니다. 고기도 안 타고 연기도 안 난다 하니 이 업체에서 만든 석쇠를 설치하면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합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닭갈비를 먹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각종 구이 집에서 사용하면 냄새도 안 나고 빨리 익고 먼지도 안 들어가고 위생적이고 좋을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요.

봄부터 겨울까지 황사와 미세먼지로 외출을 못 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나빠질지 걱정도 커집니다.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각 가정과 조리 업소 등에서도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싶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춘천시 백령로)

## 좋은 정보 많은 봄내, 강습 신청 놓치지 않게 배포되기를

소식지 ‘봄내’는 집을 나서는 길에, 혹은 집에 들어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곤 한다. 춘천의 이곳저곳 소식이 담겨있어 매번 집어 들고 들어온다. 어느 때는 나서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가져가야지 하면, 한두 권 정도만 남아 있곤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인기 있는 소식지이기도 한 것 같다.

봄내를 뒤적이다 소양로 번개시장 토요 정기 야시장 소식이 실린 것을 보았다. 어릴 적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소양로 번개시장을 여러 번 가본 적도 있는 터라 유심히 보게 되었다. 3월 4일 개장식 소식이 실려 있었다. 여러 가지 축하공연과 개장 기념품도 준다는 소식이였다. 그런데 봄내지는 그 날을 훌쩍 넘겨서야 겨우 볼 수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봄내지는 통장님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수령 받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끔 알람마당 코너의 강습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배포가 되어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에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미숙(춘천시 후석로)



## “김순희 씨의 건강한 삶을 위해 틀니를 선물해주세요”

후평동 김순희(가명) 씨 사연

### “음식을 제대로 씹어보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틀니를 하긴 해야 하는데, 돈이 문제죠.” 들성들성한 치아가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을 이어가는 김순희(가명·52세·후평동) 씨. 치아가 부실해서 제대로 씹지 못해 항상 위장약을 복용하며 치주염, 농양 때문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개 남지 않은 치아도 제 기능을 잃어 모두 발치를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 힘든 삶의 굴레가 남긴 병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 식모살이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첫 남편은 교정시설을 들락날락했고 두 번째 남편은 외도에 이은 폭언과 폭력으로 순희 씨를 정신병이란 굴레에 가뒀습니다. 설상가상, 30대 후반에 찾아온 당뇨와 그 합병증은 하나둘 치아를 망가뜨렸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큰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 새 희망을 전해주세요

틀니만 하면 괜찮다는 말에도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겨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 올려 꼭꼭 씹는 게 소원이라는 그를 위해 틀니 제작과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머뭇거리는 이 순간에도 그의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모금기간 :** 2017.3.25 ~ 4.24(1개월) **목표금액 :** 300만원(틀니 및 치과치료비 지원)

**모금계좌 :** 농협 203-01-548843(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 시 복지정책과 ☎250-3750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244-5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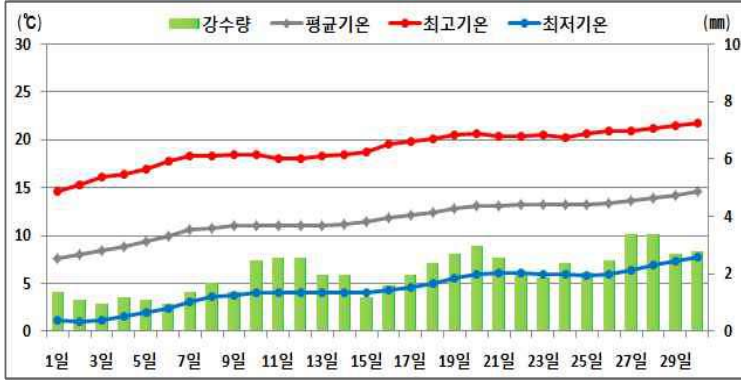
### 후원 릴레이 열 번째 대상자에게 성금 전달

두 달 간 쉬었던 봄내골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가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열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내 방이 갖고 싶다’던 고3 병훈이 기억하시는지요. 지난달 2월 10일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병훈이에게 이사하는 집에 놓일 가구와 가전제품을 마련해 전달하였습니다.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춘천시 4월 기후와 생활기상

춘천기상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장본1길 12  
 ☎ (033) 242-9131

## 기후정보(평년값 : 1981~2010)



요소	평년	극값(날짜)	
평균기온(°C)	11.6	22.1 (2005.04.30)	최고
최고기온(°C)	19.1	32.0 (2005.04.30)	최고
최저기온(°C)	4.4	-6.4 (1991.04.01)	최저
강수량(mm)	62.3	97.6 (1969.04.24)	최고

## 4월 생활기상정보

### 황사와 미세먼지



봄철이 되면 황사현상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다른 계절에 비해 크게 증가함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_{2.5}$  농도  $5\mu g/m^3$  증가 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위트레흐트 대학)

#### > 춘천 최근 10년 간 봄철 황사일수 <

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3월	4	1	3	4	3	1	0	1	5	0
4월	3	0	0	0	0	0	0	0	0	2
5월	4	3	0	1	6	0	0	4	0	2

### 대처방안

#### 황사에보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정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학교에서

기상예보를 정취,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농가에서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준비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점검

### 계절관측 평년(개화)

#### > 봄꽃 예상시기, 2016년부터 민간 기상기업이 제공

→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계절기상정보 서비스 업무의 민간이양으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이제는 민간 기상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누리집(www.kmipa.or.kr)을 방문하시면 봄꽃 개화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	개화(평년값)
개나리	4월 4일
매화	4월16일
복숭아	4월16일
배나무	4월19일
벚나무	4월12일
진달래	4월 6일



# 봄바람, 기 신바람



강, 숲, 꽃 향기가 어우러지는 춘천의 길이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봄바람 가득 흐르는 봄내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차	일시	모임장소	코스	참가비	체험	걷기 소요시간
1회	4월1일(토) 10:00~12:00	옛 강촌역	<b>북한강 물새길(7코스)</b> 옛강촌역-옛백양리역-강변길-옛강촌역	무료	축하 이벤트	2시간
2회	4월22일(토) 9:00~14:00	축제극장 몸짓	<b>서면 장군길</b> 한백록장군 정문(旌門)-신승겸장군묘역-양지말 -장군봉-한백록장군묘소	교통비/식비 20,000원	국악 공연	3시간
3회	4월29일(토) 9:00~15:00	축제극장 몸짓	<b>샘발 솔숲길</b> 여우고개-소양고등학교실습장-국군병원-울문천 -샘발장터	교통비 12,000원	샘발 장날	4시간
4회	4월30일(일) 9:00~15:00	축제극장 몸짓	<b>의암호 나들길(4코스)</b> 의암댐-의암댐스카이워크-차상찬생개(송암리) -상상마당-춘천역-소양강처녀상	교통비 12,000원	연주회	3시간
5회	5월13일(토) 9:00~16:00	축제극장 몸짓	<b>감정리 짙레꽃길</b> 감정2리마을회관-마을길-느랏재임도길-연산골 -감정1리마을회관	교통비/식비 20,000원	기수련	5시간
6회	5월14일(일) 9:00~15:00	축제극장 몸짓	<b>청평사 선동계곡길</b> 청평사주차장-부용교-구성폭포-청평사선동계곡	교통비 12,000원	들차회	4시간
7회	5월27일(토) 9:00~16:00	축제극장 몸짓	<b>석파령너미길(3코스)</b> 석파령옛길-덕두원-수레너미-한백록장군정문-방동리	교통비 12,000원	기수련	5시간
8회	6월3일(토) 8:30~17:30	소양강댐 선착장	<b>품걸리 오지마을길(6코스)</b> 품걸리1리-마을길-옛광산길-계곡길-품걸리	교통비/식비 20,000원	숲체험	5시간

- 가이드와 전문강사가 동행합니다.
- 참가비는 교통비와 체험비(2회, 5회, 8회 식비포함)로 사용되며 당일 취소 시 환불은 어렵습니다.
- 일정은 당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미리 신청하셔야 참여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 \_ [www.bomne.co.kr/](http://www.bomne.co.kr/) 033-251-9363
- 입금계좌 \_ (농협) 355-0001-3818-03 (사)문화커뮤니티금토

2017 Chuncheon  
**春 1,000人**  
**음악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春1,000人 음악회  
**1,000명의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참가대상**

춘천에 거주하는 음악애호가(학생 및 시민) 악기  
 연주의 수준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 할 수 있음,  
 춘천을 찾는 관광객 포함

**참가악기**

관악기, 현악기, 하모니카, 오카리나, 리코더, 아코디언 등  
 멜로디 가능한 악기

**참가방법 및 접수처**

다음카페(춘천시음악협회 검색)에서 홈페이지 신청란에 신청  
 TEL : 010-5644-9557

**접수기간**

2017년 4월 3일(월) ~ 4월 14일(금)까지 / 선착순 1,000명

**2017. 7. 22**

**토요일 오후 5시**

**춘천호반체육관**

**접수 오후 1시**

**리허설 오후 2시, 보면대지참**

**참가자 혜택**

가. 행사참가 연주회 기념 티셔츠 제공  
 나. 초, 중, 고 학생 봉사시간(4시간) 확인증 발부

**합동연주곡**

누구나 연주 가능하게 편곡한 6곡을 다음카페 (춘천시음악협회 검색)  
 악기별 조성에 맞게 다운받아 연습후 연주. (C조, Bb조, Eb조 낮은음표 악보)

**연습일정**

총 연습 일정 춘천시음악협회 홈페이지 참고(추후 홈페이지에 기재)

※ 타지역 관광객은 참가신청시 타지역이란 표시하세요,  
 당일 리허설 참석하고 연주합니다.

주최



춘천시

주관



춘천시음악협회

후원



춘천시문화재단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